

김 태 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가족분화, 자아존중감과
부부 갈등대처방식에 따른 결혼안정성 연구

200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정 은 희

논문개요

본 연구는 성인 기혼남녀가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특성을 체계변인인 가족분화에서 하위체계에 속하는 부모-자녀분화와 원가족에서의 경험에 의한 개인 특성 중 대인관계를 맺는 기초적인 반응양식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 부부의 갈등상황 시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변인들과 결혼 안정성과의 관련성 및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분화척도(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 DIFS)를 사용하여 가족하위체계인 부모-자녀분화를 살펴보았으며,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와 이에 기초한 김오남(1998)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총 5개의 긍정적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측정을 위해서는 최규련의(1994)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이성적 대처방식, 갈등 회피,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의 세 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결혼안정성은 Booth와 동료들이 개발한 결혼 불안정성 척도(Marital Instability Index : MII)에서 안정성척도를 고안하여 작성하였는데, Booth(1983)의 결혼 불안정성 척도(Marital Instability Index : MII)를 기초한 김미숙(1989)과 장춘미(2001)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12문항을 선별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지속 년 수가 10년까지의 기혼남녀 총 310명(남자: 156명, 여자: 1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 자료는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검증, ANOVA,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를 실시하고, 비모수 분석, 적률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등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상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0.0프로그램에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난 주요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부모-자녀분화 수준은 중간정도였으며 (아버지: 평균 36.04, 점수범위 11 ~ 55 , 어머니: 평균 37.95, 점수범위 11 ~ 55), 자아존중감은(평균 17.74, 점수범위 5 ~ 25) 전반적으로 다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안정성은(평균 47.33, 점수범위 12 ~ 60) 비교적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영역 중 이성적 대처방식은(평균 17.99, 점수범위 5 ~ 25) 중간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갈등회피(평균 12.49, 점수범위 5 ~ 25)와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평균: 12.90, 점수범위: 5 ~ 30)은 전반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부모-자녀분화는 중상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은 다소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갈등 대처방식에서는 이성적 대처방식의 긍정적 대처방식이 갈등 회피와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에 비해 좀더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안정성도 비교적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중 부모-자녀분화,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 결혼안정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자녀분화는 성별에서는 기혼여성이, 출생순위에서는 막내가, 연령은 20대 연령집단일 때, 결혼지속 년 수는 2년 미만의 기간일 경우 아버지-자녀분화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자녀분화는 연령이 20대 연령일 경

우, 출생순위는 막내일 경우, 결혼기간은 2년 미만의 기간일 때 어머니-자녀 분화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이 단순노무직일 경우는 분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자녀분화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고, 결혼지속 년 수가 짧고, 막내의 출생순위에서 분화정도가 높았다.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들은 연령과 직업과 결혼지속 년 수였으며, 연령은 20대 연령일 때, 결혼지속 년 수는 2년 미만의 기간일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영역에서 이성적 대처방식은 연령이 많은 40대 연령 집단이 20, 30대 연령집단에 비하여 이성적 대처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지속 년 수도 2년 미만기간의 집단보다 5년에서 10년 미만기간의 집단이 이성적 대처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회피에는 연령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20대의 연령집단이 30, 40대 보다 갈등회피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은 관리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직의 경우와 결혼 2년 미만의 기간일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유형인 이성적 대처, 갈등회피,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의 정도에 따른 결혼안정성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자녀분화와 결혼안정성은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 모두 분화수준이 높아지면 결혼안정성도 높아짐을 나타냈다. 자아존중감과 결혼안정성의 관계도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부부 갈등대처방식과 결혼안정성의 관계는 세 가지 하위유형 모두 결혼안정성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이성적 대처방식은 많이 사용할수록, 갈등회피와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은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버지-자녀분화, 어머니-자녀분화,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유형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결혼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이었으며, 두 번째 변인은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 이었고, 그 다음은 이성적 대처방식과 아버지-자녀분화가 동일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마지막으로 갈등회피 순으로 영향력이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는 아버지-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갈등 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유형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자녀분화가 잘 이루어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부부의 갈등상황에서 갈등회피와 부정적인 감정·행동 표출과 같은 부정적인 대처방식보다는 이성적 대처방식과 같은 긍정적인 대처를 할 때 결혼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 중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노력과 의미 있는 대상의 지지와 인정으로 향상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변인이므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모하여 현재 부부의 결혼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부부관계 교육이나 예비부부 교육 등을 통해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개발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5
II. 이론적 배경	8
1. 가족분화	8
1) 가족분화의 개념	8
2) 가족분화의 수준	12
3) 가족분화와 결혼안정성	13
2. 자아존중감	16
1) 자아존중감의 개념	16
2) 자아존중감과 결혼안정성	17
3. 부부 갈등대처방식	19
1)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개념 및 기능	19
2)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유형	21
3) 부부 갈등대처방식과 결혼안정성	24
4. 결혼안정성	26
1) 결혼안정성의 개념	26
2) 결혼안정성과 관련된 기타변인들	28
I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32

1. 연구모형	32
2. 연구문제	33
3. 용어의 정의	34
IV. 연구방법	36
1.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36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41
3. 자료의 분석방법	45
4. 연구의 제한점	47
V. 결과 및 해석	48
1. 기혼남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부모-자녀분화), 자아 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과 결혼안정성의 전반적인 경향	48
2. 일반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분화(부모-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 결혼안정성의 차이	50
3.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부모-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 처방식의 정도에 따른 결혼안정성과의 차이	59
4. 배경변인, 부모-자녀분화,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이 결혼안 정성에 미치는 영향력	62
VI. 결론 및 제언	67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각 변인별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	40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44
<표 3> 부모-자녀분화, 부부 갈등 대처방식, 결혼안정성,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경향.	49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자녀분화, 자아존중감, 결혼안정성의 차이	52
<표 4-1> 배경변인에 따른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차이	56
<표 5-1> 부모-자녀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	60
<표 5-2>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	61
<표 5-3>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	62
<표 6> 결혼안정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66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32
-------------------	----

I. 서론

1. 문제제기

한국가족은 지난 수십 년 간 사회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본격적인 가족변화는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 계획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출산율의 저하와 가족규모의 축소 등에 따라서 가족기능의 변화 및 성역할의 변화 등이 이루어져 가족의 형태와 생활양식은 다양화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가족관계나 그 역할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과거의 가족관계가 가장을 중심으로 한 남편과 아내, 부-자녀 권위주의적 관계를 형성하던 것에 반해 오늘날에는 평등과 애정적 기능을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가 가족관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 우리나라에서 역할 수행기능이 강했던 권위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결혼생활에 불만족이 크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자유롭게 이혼할 수 없었으므로 부부관계는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점점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애정을 기본으로 한 우애적이고 동반자적인 부부관계로의 변화는 우애성이 없어지거나 결혼생활에 갈등이 높아지면 이혼을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선택함으로써 애정을 기반으로 한 부부관계가 이혼증가 원인 중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Skolnick과 Skolnick(1980)는 부부의 애정적 기능이 강조될수록 결혼 관계 해체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여 결혼 불안정성

이 현대 가족의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전춘애·박성연, 1994).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이혼통계 결과에 의하면 2003년 총 이혼건수는 16만7천 건으로 2002년 14만5천3백건에 비하여 21만7천 건 증가하였으며, 조이혼율¹⁾도 92년 1.3건, 2001년 2.8건, 2002년 3.0건, 2003년 3.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10년 전(92년)에 비해 2.2배 증가하였다(통계청, 2004) 특히 이혼의 주된 사유는 부부불화²⁾가 전체의 73.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성격차이가 44.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2003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부부의 갈등이 결혼해체의 큰 원인이 됨을 예상할 수 있다.

갈등은 인간관계에 내재된 것으로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갈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며 일상생활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기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두 남녀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부부간의 주도권 다툼이나 가족 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은 이상적인 가정에서조차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고 되고 있다(이정순·박성연, 1981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갈등은 갈등발생 자체가 문제이기 보다는 이미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갈등이 표면에 나타난다고 해서 결혼이 실패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결혼생활 속에 내재해 있던 어려움이 표출되는 결과가 되어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Scanzoni, 1979), 갈등이 심한 부부는 갈등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갈등 해결을 위해 대처하는 방법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라는 Straus(1979)의 주장은 갈등대처방법의 중요성을

1) 인구천명 당 이혼건수

2) 부부의 불화에는 배우자부정, 정신적·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성격차이 등이 있다(통계청, 2004).

더욱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원만한 결혼생활의 유지에 있어서 효과적인 갈등대처방법은 무척 중요한 요인인데, 동일한 갈등 상황이라도 개인이 받아들이는 태도, 인지하는 정도 등에 따라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부부가 각각 자신의 욕구, 가치, 태도, 믿음에 따라 상황과 사실을 다르게 인지하기 때문이다(이현주, 1996; 한미향, 2000). 또한 통계청의 이혼통계 결과(통계청, 2004)에서 이혼의 가장 주된 사유로 나타난 ‘성격차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자아개념을 가졌으며, 이것은 인간이 타인과 끊임없는 관계를 맺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기자신에 대하여 가치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의 가족원간 상호작용은 개인이 대인관계를 맺는데 기초적인 반응양식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유영주, 1993). 따라서 개인이 지니게 되는 특성상의 차이는 결혼 전 원가족(family of origin)에서 가족원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이 성장하면서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특성이 일생을 두고 개인의 성장 발달과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어(김경자, 2004) 개인이 평생 지니는 행동과 가치, 목표, 태도가 결혼 후 생식가족에서의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에도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원가족과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들에서도 원가족의 건강성이 높다고 지각한 부부들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며(Willcoxon & Hovestadt, 1983; Forrest, 1991), 원가족으로부터의 자아분화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갈등이 없었다는 결과(전춘애, 1994; Lavery, 1984; VanAmburgh, 1987; Mee-Gail, 1991; 재인용)가 보고 되

고 있다. 그리고 Lewis와 Spanier(1979)도 부부의 안정된 결혼생활을 예견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은 행복한 어린시절과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라고 하였다.

최근에 원가족의 경험을 다룬 연구들은 자아분화와 원가족건강도에 따른 결혼적응, 생활만족도, 부부갈등 및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변인 등(김현정, 1999; 이신숙, 2000; 한미향, 2000; 이종원, 2002)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 연구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원가족에서의 전반적인 경험을 파악하는 척도나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여 부부의 생활 및 결혼 만족도, 갈등 등이 조사되어 왔으며, 반면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분화와 결혼안정성을 연결시켜 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원가족과 핵가족의 구성원들이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우리나라는 원가족의 영향력 중에서도 부모-자녀와의 관계성과 분화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인 기혼남녀가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특성을 체계변인인 가족분화 중 하위체계에 속하는 부모-자녀분화를 살펴보고, 원가족에서의 경험에 의한 개인 특성 중 대인관계를 맺는 기초적인 반응양식 중 하나로서 인간의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자아존중감(김현정, 1999)과 또한 현재 기혼남녀의 결혼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부부 갈등대처방식을 살펴봄으로서 이러한 부모-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가족 안에서 부부관계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나 현대사회에서나 가족관계 혹은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 되며 가족의 기능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때는 가족도 원만하게 유지되어 문제 상황의 해결이 쉬우나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족 내의 다른 관계들과 가족전체가 기능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게 된다. 즉, 현대가족의 핵심이 되는 부부관계는 가장 밀접하고 지속성 있는 전인격적인 관계로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고 만족할 때 가족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부부관계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서로 공유하며 안정된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관계로서, 끊임없는 대화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각자의 경험이 서로의 것으로 재확립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가져야 하는데(Berger & Keller, 1980; 김현정, 1999에서 재인용),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원가족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적 경험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원가족(family of origin)³⁾이란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오는 동안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가족으로 결혼한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까지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인 소속감을 가져온 가족을 말한다. 이러한 원가족의 근원적인 영향력은 깊이 스며들어 생식가족⁴⁾에게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3) 원가족(family-of-origin)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장한 가족”으로 어린시절의 대부분을 같이 보낸 가족을 의미한다. 원가족은 가족에서의 성장과정과 가족관계의 역사를 중요시한 개념이다. 부모나 형제 없이 성장한 경우에는 친가족 대신의 역할을 해 주었던 성장과정의 중요한 사람이나 가족을 의미한다(A. J. Hovestadt, W. T. Anderson, F. A. Piercy, S. W. Cochran, & M. Fine, 1985).
원가족은 출생가족, 근원가족이라 하기도 한다

영향력을 행사 한다(Hovestadt, Anderson, Piercy, Cochran, & Fine, 1985; 이종원, 2002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핵가족 부부에게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력은 서구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사회보다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여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정서적, 심리적으로 확대가족의 테두리 안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유은희(1991)는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과 자율성이 균형 있게 발달한 성인자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면서, 한국 가족에서는 부부의 결혼생활에 부부체계뿐만 아니라 원가족도 포함시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원가족에서 경험한 상호작용의 질이 현재의 개인의 생활 및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 및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간의 결혼만족도, 결혼적응, 갈등과의 관련성에 대해 주로 연구되어져 왔다(김현정, 1999; 최주희, 2000; 한미향, 2000; 김순기·유영주, 2001; 조은경, 2002; 이종원, 2002). 그러나 부부의 결혼 전 원가족과의 경험과 현재 결혼생활 안정성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더구나 가족체계와 연관지은 연구는 무척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이 10년이라는 통계청(2003)의 보고에 근거하여 결혼지속 년 수 10년까지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원가족의 건강성을 의미하는 변인인 가족분화 중에서 하위체계에 속하는 부모-자녀분화와 원가족과의 경험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개인 특성 중 한 요인인 자아존중감, 그리고 기혼 남녀의 결혼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부간 갈등상황 시 대처유형을 나타내는 부부 갈등대처방

4) 생식가족(family-of-procreation) : 자신이 결혼하여 형성한 가족을 의미한다.

식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변인들과 결혼안정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 중 결혼안정성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어떠한 변인인지를 조사하여 기존에 연구가 부족했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규명하고 결혼안정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분화

1) 가족분화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에서 부모-자녀와의 관계특성에 대해 가족분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족분화는 가족 내에 가족구성들 사이의 상호작용 유형으로 가족체계 변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전영주, 1998; 남순현, 2000), 가족분화의 개념 설명을 위해 먼저 가족체계에 대해 살펴본 후에 체계변인에 속하는 가족분화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970년대 이후로 가족학자와 가족상담가들은 주로 체계이론을 이론과 실제에 적용해 왔다. 체계론적 관점은 통합성과 상호관련성을 강조한다. 즉,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은 상호관계를 갖고 있고 상호의존 한다고 보며, 이들 부분은 상위체계와 하위체계의 여러 위계질서를 갖으며 체계간 이 경계를 갖고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체계론적 관점을 가족에 적용했을 때 가족체계는 가족원들 사이에 상호관련성을 갖고 상호의존하고 있으며 가족원들은 성, 연령, 역할, 세대 등에 따라서 상위체계와 하위체계의 위계질서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은 가족원들에게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은 체계이다(Minuchin, 1974; Broderick, 1979; 김명자 외, 2002).

일반체계론적 관점을 가족에게 적용한 대표적인 영역은 가족문제나 가족치료 분야이다. Bowen(1970)은 가족을 일련의 상호관련된 체계와 하위 체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총체로서 정서관리체계로 보았다. 따라서 가족 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가족의 체계적 역기능에 의한 것이며, 가족원들의 지적체계와 정서체계가 분화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서 나온 핵심 개념은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이다. 자아분화란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족으로부터 개체화된 정도를 의미한다(Kear, 1978).

체계로서 가족을 연구할 때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Bowen의 분화는 개인변인으로 사용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자들은 체계변인 또는 관계변인으로써의 ‘가족분화’를 개념화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Allison & Sabatelli, 1988; Sabatelli & Anderson, 1991; Chun & MacDermid, 1997). 가족분화(family differentiation)와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는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이고 분리된 기능을 하는가와 관련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분화와 자아분화는 개념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개념화의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재개념화 작업의 필요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자아분화는 가족구성원 한 개인의 분화정도에 초점을 두지만, 가족분화는 모든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자아분화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잃지 않고 정서적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성, 독자성, 독립성 등의 개념들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온 경향이 있

다(Friedman, 1991). 따라서 자아분화와 자율성간의 개념적 혼동으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자아분화를 보이는 개인은 정서적 자율성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분화수준이 높다는 것은 가족 안에서 개인의 정서적 자율성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가족분화(family Differentiation)는 가족체계의 변인으로서 가족구성원이 자아를 유지하는 능력인 자율성과 동시에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남순현, 2000). 즉, 가족분화는 가족 내에서 가족구성원인 개인의 자율성과 친밀감의 상호작용과 동시에 개인의 자아 분화도 보장되는 개념이지만, 자아분화는 독립된 개체로서 갖는 자율감과 친밀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차정화, 2002).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분화(family differentiation)를 연결성(친밀감)과 분리성(자율성)에 대한 균형정도를 조정해주는 가족 내 거리조절(distance regulation)유형 또는 상호작용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Anderson & Sabatelli,1990, 1992). 여기서 거리조절은 가족체계 내 가족구성원들이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다(남순현, 2000). 연결성(connectedness)이란 “의미 있는 타인과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한 개인이 원가족과 심한 정서적 분리”를 나타내는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⁵⁾과 반대되며(Kerr & Bowen, 1988; 남순현, 한성열, 2002에서 재인용), 분리성(separateness)은 “의미 있는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가족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가까워 개인의 감각이나 경계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5) 정서적으로 단절상태로 지내는 이유는 관계를 맺음으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잃게 될까 두렵고 불안이 가중되는 등 정서적 긴장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정서적 단절이란 바로 사람 사이의 극심한 정서적 분리 양상을 의미하며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김혜선·고성혜 공저, 2002, 118pp).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서적 융합(emotional fusion)⁶⁾과 반대된다(Bowen, 1978; 남순현, 한성열, 2002에서 재인용). 따라서 연결성과 분리성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며, 연결성과 분리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가족이 효율적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따라서 체계변인으로서의 가족분화는 정서적 연결성과 분리성이 끊임없이 유지되는 양방적 상호작용을 포함하게 되며, Bowen이론의 감정체계와 관련된 기본가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더 큰 설명적 힘을 갖게 된다(Chun & MacDermid, 1997, 전영주, 1998에서 재인용).

또한 가족분화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family-of-origin emotional health)을 의미한다. 개인이 지각하는 원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건강수준은 원가족 내 대인관계에 필요한 정서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며, 개인의 정서적 건강과 결혼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Fine, 1988). 즉 원가족으로부터 적절히 분화되어 있는 개인은 심리적 적응을 잘하며, 결혼 후에도 만족스런 결혼생활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친밀감과 자율감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가족분화 개념에 근거하여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 하위체계의 분화 정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가족분화가 현재 기혼성인자녀의 결혼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6) 융합(fusion)은 융해이라고도 한다. 정서적 융합이란, 가족구성원들 간의 경계가 통합되거나 모호해지는 과정으로서, 융합의 정도가 클수록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의 긴장과 불안에 대해 더 정서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즉, 개별성과 연합성간의 불균형을 이룬 경우에 융합되었다고 하며, 정서와 지성 사이에 융합이 클수록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에 융합되기 쉽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융합된 사람은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고수하지 못하며, 이성과 사고가 아닌 감정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한다(김혜선·고성혜 공저, 2002, 113pp; Klugman, 1985, 전춘애, 1994에서 재인용).

2) 가족분화의 수준

가족분화는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높은 가족분화 수준은 연결성과 분리성의 균형이 최적화된 상태이므로 가족구성원을 포함한 의미 있는 타인들에게 있어서 자율감과 상호존중,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의 갈등과 긴장, 위기에 대해서도 가족의 맥락 내에서 근원적인 해결을 도모하게 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가족구성원들은 가족 외적인 변화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과 통합을 유지하려는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차정화, 2002; Allison & Sabatelli, 1988).

중간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가족구성원들은 연결성과 분리성의 균형이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가족구성원들 보다 덜 융통적인 방식을 나타낸다. 중간 수준의 가족분화가 이루어진 가족구성원들은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변화에 대한 요구에 직면했을 때 자아를 통합할 능력이 없다. 이러한 가족구성원들은 역기능적인 가족 역동을 보이는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서 적응적이지 못하며, 외부 변화에 대해서 쉽게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불안해하며, 정서적 균형을 찾지 못한다. 이러한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가족구성원들에게 개별화되고 심리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은 가족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개인의 개별화를 방해하는 가족구성원들간의 대처전략은 가족구성원들간의 융합과 정서적 하나됨의 상태로 만들게 된다(Gavazzi & Sabatelli, 1990; 남순현, 2000에서 재인용).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가족구성원들은 분리성과 연결성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런 가족의 가족구성원들은 연결성 없이 분리성만 보이

거나 분리성 없이 연결성만 보이는 두 가지 극단적인 거리조절 유형을 보인다. 즉, 거리조절의 불균형으로 가족체계 내에서 갈등과 긴장이 유발되어 삼각관계와 융해(fusion)가 나타난다. 연결성 없이 분리성만 강조되는 가족 내 거리조절 유형은 가족구성원들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필수적인 정서적 연결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경우, 개인의 자율성은 타인과의 상호관계성 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타인에 대한 자율감과 독립된 개체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반대로 분리성 없이 연결성만 강조되거나 대인간 경계가 모호할 때, 가족구성원들은 개인이 자율성과 개별성을 방해하는 정서적 융합과 소속감을 강요받는다. 그 결과, 개인의 심리적·인지적 성장의 방해와 함께 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된다(차정화, 2002; Allison & Sabatelli, 1988).

3) 가족분화와 결혼안정성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사회 환경적 배경요인으로는 사회문화적 요인, 현재 상황적 요인, 원가족의 특성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영희, 1999).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 중에서, 원가족(family of origin)의 특성 요인이나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결혼생활의 질적인 측면이나 안정성에 있어서 다른 요인들 보다 더 설명력이 있음이 보고 되고 있다(Kelly & Conly, 1987; Benson et al., 1993). 즉, 원가족으로부터의 분리가 성공적인 결혼의 중요 지표가 된다고 (Stshmamm & Hiebert, 1980)할 수 있다.

원가족의 요인은 자신이 자라온 가족배경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여부, 원가족의 역기능적 요소, 부모의 정신건강, 부모의 지원망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상태보다는 그러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모의 갈등이나 또는 원가족 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희, 1999).

이러한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 및 원가족의 분화와 자녀의 결혼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wis, Beavers, Gossrutt와 Phillips(1976)는 정서적 건강수준이 높은 원가족은 자녀가 적응적이고 능력 있는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Framo(1976)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분리감을 모두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Bowen도 핵가족에서 원가족(family of origin)의 영향을 강조하였다(Kerr & Bowen, 1988). 즉, 원가족 내에서 습득한 상호작용 방식은 결혼한 기혼 자녀의 핵가족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원가족의 영향인 정서적 힘(emotional force)은 한 개인이 배우자를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부모와 맺었던 관계가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지닌 개인은 같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지닌 이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결합은 정서적 융합을 초래하여 불안정한 관계가 될 수 있고,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 거리감을 증가시킨다. 반면 원가족에 대해 정서적으로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개인일수록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며 안정된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남순현, 2000). 유은희와 박성연(1989)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과 자율성이 균형 있게 발달한 성인 자녀의 결혼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함으로써 현재 부부 관계에서 원가족의 지속적인 영

향을 시사하였다. 즉, 원가족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개인은 안정되고 만족한 결혼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Bowen(1978)은 결혼 전에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자녀에게 결혼 후에도 이런 형태가 지속된다면, 자녀는 죄책감을 느끼고 핵가족의 경계선이 침입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하였다. 반면에 부모로부터 정서적 단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배우자가 단지 배우자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 이외에 부, 모, 형제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거부에 지나치게 관민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반응은 결혼 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McGoldrick, 1980). 따라서 결혼 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균형 있는 연결성과 분리성의 상호작용은 분리기에 있는 자녀의 이성 관계에 그대로 전달되고,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 생활을 하는데 만족감을 줄 것이다(남순현, 2000).

또한 Skowron(1995)의 연구결과에도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 반응과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의 정도가 낮고, 자기 입장을 유지시킬 능력이 클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eifman(1986)은 정서적 단절을 심하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부부관계에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결혼해체율도 높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원가족의 건강성이 높다고 지각한 부부들은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Wilcoxon & Hovestadt, 1983; Forrest, 1991), 원가족으로부터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갈등이 낮았다는 연구결과들이(전춘애, 1994; Lavery, 1984; VanAmburgh, 1987; Mee-Gaik, 1991) 보고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종원, 2002). 즉, 원가족에서 경험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관계는 상호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인의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결

혼생활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family-of-origin emotional health)을 의미하고 있는 가족분화는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므로 그 영향력이 어떠한지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평가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종종 자아개념과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한다(Coopersmith, 1967 ; Rosenberg, 1979; Harter, 1983). 또 어떤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을 자기개념의 한 구성요소나 측면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송영갑, 2000) 그러나 몇몇 이론가들은 자아존중감을 자기개념과 구분하여, 자신의 자아존중감은 자기(self)에 대한 보다 더 정서적인 평가를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자기개념은 자신에 대한 어떤 지식을 나타내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다양한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Wigfield & Karpathian, 1991; 송영갑, 2000에서 재인용). 또한 송현종(1993)은 자아존중감이 자신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결과를 따르는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여부 등 자기의 태도에서 보여 지는 가치성의 개인적 평가의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Well과 Marwell(1976)은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에는 자기사랑(self-love), 자기신념(self-confidence), 자기존경(self-respect), 자기수용(self-acceptance), 자기평가(self-evaluation), 자기가치(self-worth) 등이 있으며, 이들 용어는 자기평가와 자기애정에 대한 심리적 기능의 과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신옥, 1993에서 재인용)

이처럼 자아존중을 자기개념과는 달리 자신의 다양한 속성, 감정상태, 자기신념, 자기가치 등으로 보는 것을 심리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자아존중감은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의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과정은 심리적 성장배경과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치료자 및 심리학자들은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ussen, Conger & Kagan, 198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과 결혼안정성

본 장에서 살펴볼 자아존중감과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무척 미흡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논제를 포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 개인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징적 의미화를 거쳐 자기 자신의 가치와 정체감을 형성하고 발달시킨다. 따라서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적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가족과 같이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며 그 속에서 안정을 찾게 된다고 한다(유영주, 1993; 김현정, 1999에서 재인용). 특히 어린 시절 가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특성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를 맺는 기초적인 반응양식으로 인간의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과 부부의 관계적 상호작용 과정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김영희(1999)는 결혼생활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Dykstra(1996)의 연구결과에서는 개인적 특성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별 차이가 없어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된 개인적 특성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인관계 또는 부부관계의 질과 안정성에 관심을 가진 몇몇 학자들(Levine, 1991; Nelson, Hill-Barlow & Benedict, 1994; 김현정, 1999에서 재인용)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각 개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한 자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부부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에너지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던 Satir(1975)에 의하면, 가족치료의 궁극적 목적은 가족 성원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명희(1988)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조성욱·신효식

(1987), 최외선·손현숙(1991), 최규련(1993)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결혼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조유리, 2000). 또한 김선남(1991)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서로 상대를 자기의 부족한 자아존중감을 채우는 수단으로 보게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김현정, 1999에서 재인용). 따라서 건강한 부부관계의 핵심적 요소로 각 배우자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나 부부간 결혼생활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 중 한 요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더욱이 부부관계는 가족의 핵심이며 기본이 되는 중요한 관계이며, 부부는 서로 상이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바람직하게 조정하고 타협해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 전 원가족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개인적 특성 중 한 요인인 자아존중감을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하고 기혼 남녀의 결혼안정성에 자아존중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부부 갈등대처방식

1)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개념 및 기능

갈등대처방식이란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것으로 Pearlin과 Schooler(1978)는 대처(coping)를 고통의 점

차적인 감소, 문제 해결, 현실 검증, 복귀의 과정이라 하였고, Chodoff(1964)는 심리적 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모든 방법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조유리, 2000에서 재인용).

결혼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부갈등은 서로의 욕구 또는 의견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여러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어느 정도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결혼 전 교제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기대 등은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갈등은 인간관계에 내재된 것이므로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당연히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김혜선, 박혜인, 옥선화 공저, 2003).

Natarius와 Markman(1993)은 결혼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되는 부부간의 상이성을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상이성을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문제로 보았다. 따라서 갈등이 표면에 나타난다고 해서 결혼에 실패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 즉, 부부간의 갈등은 결혼생활 속에 잔재해 있던 어려움이 표출되는 결과가 되어 지금까지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여 부부관계에서 긴장을 제거시켜 주고 상호이해를 증가하여 주는(Scanzoni, 1979)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갈등이 신체적, 정신적 부적응을 일으키며 관계에 불신이나 거리감을 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두 가지 양면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갈등이 심한 부부는 갈등의 존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처하는 방법이 부적당하기 때문인 것이다 (Straus, 1979).

이상에서와 같이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갈등 자체의 수용과 상호관계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갈등을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유형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갈등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긍정적인 대처방안은 부부의 갈등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지 않고,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갈등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므로 갈등을 해결한 후에 부부는 상호간에 만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호 건설적, 협력, 이성적 대처방안 등은 긍정적인 유형에 속하는 갈등대처방식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갈등대처방식은 갈등이나 갈등으로 인해 생긴 감정을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갈등상황을 회피하며, 갈등 논의에서 물러나든지 혹은 자신의 입장과 요구만 주장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불평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냄으로 결국 갈등은 미해결로 남게 된다. 또는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하여 부부 상호간에 혹은 어느 한쪽이 불만을 품게 될 수 있다. 부정적인 갈등대처방안에는 주로 순응, 회피, 저항, 부인, 철회, 공격 등의 유형이 속한다(장춘미, 2001).

부부 갈등대처방식을 분류하는 방법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관련연구들을 살펴보면 갈등대처방식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Straus(1979)는 갈등대처방식으로 ①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해결할 정보

등을 이용하는 이성적 방법(reasoning)과 ②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③육체적 힘이나 완력을 이용하는 폭력(violence)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Rice(1979)는 부부 갈등대처방식 유형을 완전한 이해와 갈등 해결에 도달하는 건설적인 싸움, 문제 자체보다 상대의 자아를 공격하는 파괴적인 싸움, 위협과 복종, 역할유도·역할수정·역할역전, 협상과 그에 따른 계약 등으로 분류했다. 또한 McCubbin, Larson 그리고 Olsen(1982)은 대처방식을 문제에 대한 자신감, 문제의 재해석,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등의 가족 내적 전략과 가족 외부 체계인 친구, 종교 등의 자원을 이용하는 가족 외적 전략으로 나누었다(조유리, 2000에서 재인용). Rusbult, Johnson과 Morrow(1986)는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차원, 그리고 관계유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차원을 교차시켜서 4가지 갈등대처방식을 설명하였다. 즉, 갈등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며, 그러한 행동이 부부의 관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표현형(voice pattern), 갈등을 다루는데 적극적이지만 부부의 관계를 위협하는 탈출형(exit pattern), 갈등을 소극적으로 다루되 관계유지에는 유익을 주는 순종형(loyalty pattern),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회피적일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손상시키는 무시형(neglect pattern)이 그것이다(장춘미, 2001에서 재인용).

부부 갈등대처방식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송말희(1990)의 경우는 합리화와 부정, 회피와 억압, 외부의 도움 요청, 적극적 행동으로 구분하였고, 최규련(1994)은 외부도움 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 감정 표출, 행동 표출, 회피로 분류하였다. 최혜경, 노치영(1994)은 문제 상황을 변화시키며 관계 성장과 유지를 추구하는 적극적-긍정적 문제해결 행동 유형, 문제 변화에 관계 목표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적극적-부정적 문제해결 행동

유형,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소극적-긍정적 문제해결 유형, 문제 자체를 부인하거나 관계 자체를 피하는 소극적-부정적 문제해결 행동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권오실(1995)은 이성적 대처, 외부도움요청, 감정표현, 회피, 순응 및 체념, 기분전환, 의견강요의 7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에 있어서 남편의 경우에는 이성적 대처, 기분전환, 회피, 감정표현, 의견강요, 순응 및 체념, 외부도움요청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경우에는 이성적 대처, 감정표현, 기분전환, 의견강요, 외부도움요청, 회피, 순응 및 체념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현선과 지금수(1995)는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대처방식을 양보형, 소극형, 외면형, 공격형, 비난형으로 구분하였고,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대처방식을 이성형, 소극적형, 유아형, 공격형, 변덕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부부간 갈등대처방식의 차이에 있어서 Thompson과 Walker(1991)는 부인이 남편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며, 부인이 결혼 생활에 대해 남편보다 더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지각하며 갈등을 해결해야 될 책임자로 자신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남편이 주로 이성적이거나 행동 표출 방식을 취하고 부인은 방어적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말희, 1990; 김명자, 1991; 최규련, 1994; 최혜경·노치영, 1994; 조유리, 2000에서 재인용).

이상에서와 같이 관련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유형은 크게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 그리고 문제 직면적 행동과 회피하는 행동으로 구분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에 연구되어진 결과와 최규련(1994)의 연구를 참고하여 부부 갈등대처방식을 이성적 대처, 갈등회피,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결혼안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부부 갈등대처방식과 결혼안정성

그 동안 부부 갈등대처방식과 결혼적응, 결혼 만족도, 결혼의 질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이 조사되어 왔으나, 결혼안정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제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부부 갈등대처방식과 결혼안정성의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부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연구는 점점 의사소통 방식이나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갈등해결 방식이나 부부간의 일치에 관한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김영희, 1999). 이것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은 부부 사이에 생긴 갈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가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의 갈등대처방식과 결혼생활의 만족도 및 결혼적응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영역 선정에서 연구자들마다 측정된 영역들은 다르지만 연구결과의 일반적인 경향은 발견할 수 있다. 즉, 갈등대처방식에 따라 부부간의 결혼만족도 및 적응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성적 대처방법을 사용할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고(김은정, 1992; 최규련, 1995), 회피적 대처방법을 사용할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유은희, 1994; 최규련, 1995). 또한 고현선과 지금수(1995)는 남편이 이성형일 때 부인의 유형과 관련 없이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부부 모두 요구형인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갈등 대처유형이 양보형인 경우가 외면형일 때보다, 또 외면형일 때가 공격형이거나 비난형인 경우보다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이 이성형인 경우에 남편과 부인

의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변덕형일 때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이 외에 국외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Margaret E. Madden & Janoff-Bulman(1981)은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갈등의 심각성과 갈등의 해결가능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아내가 부부갈등을 바람직한 대처행동을 사용하여 해결할 때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조유리, 2000에서 재인용).

Gottman과 Krokoff(1989)는 갈등으로부터의 회피는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Bahr(1989)도 긍정적인 방법으로 갈등에 직면하는 것이 결혼만족도를 높이며 갈등을 피하는 것은 결혼만족도를 낮추고 있다고 하면서,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갈등대처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청, 동정심, 융통성, 타협에의 의지 등을 들고 있고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갈등대처방식으로 부인, 전이, 약속, 취소, 비난, 공격, 부정적 상호관계 등이 있다고 하였다.

Heavey, Layne와 Christensen(1993)은 남편이 요구형이고 아내가 후퇴형인 것이 그 반대인 경우보다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Kurdek(1995)은 결혼만족도가 낮은 부부집단에서 아내는 대결형을, 남편은 후퇴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부문제해결에 있어서 파괴적이거나 회피적인 행동을 취하는 부부는 부부문제해결 효율성은 낮고 결혼에 대해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부부는 부부문제 해결 효율성이 높고 결혼에 대해서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Canary & Cupach, 1988, 조유리, 2000에서 재인용). 그리고 Robert 와 Krokoff(1990)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설명하는 20%가 남편의 회피, 아내의 적대감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부부 갈등대처방식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들에 따라 하위영역과 결과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혼만족 및 안정성과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은 관련이 있다는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부간에 갈등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러한 갈등을 해결 및 대처하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갈등을 잘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 남녀의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에서 갈등에 대처하는 부부의 갈등대처방식과 결혼안정성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각 하위영역별로 결혼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4. 결혼안정성

1) 결혼안정성의 개념

1970년대 이후부터 부부관계의 안정성과 만족도의 문제가 비중 있는 연구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김미숙, 1989). 그러나 결혼만족도 및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개념적인 혼란과 평가도구의 불일치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결혼생활의 질은 부부관계의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되고 있으며, 결혼생활의 안정성은 결혼생활의 상태로 평가로 정의되었다. 즉, 이혼이나 별거 또는 사망으로 결혼생활이 종결되느냐로 정의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결혼안정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Burr(1973)는 결혼안정성을 ‘지속되어진 생활(continued existence)’ 대 ‘결혼에서의 종식(termination of marriage)’으로 정의했고, Lenthall(1977)은 ‘개인의 가장 유용한 결혼 대안과 결혼의 결과 사이의 비교’의 기능으로 개념화했다(김미숙, 1989). 또한 Lewis와 Spanier(1979)는 결혼안정성을 결혼의 결과로써 나타내고 있다. 즉, 안정된 결혼은 한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서만 결혼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불안정한 결혼은 한 배우자 또는 양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결혼을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관점에서의 결혼의 종식을 말한다.

한편, 결혼불안정성은 결혼안정성과 같은 차원의 다른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결혼와해, 이혼, 낮은 결혼의 질, 유기라는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⁷⁾. 그러나 이 개념들은 서로 상관은 있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들이다(김미숙, 1989).

Booth, Johnson과 Edwards(1983)는 결혼 불안정성을 결혼안정성과 같은 차원의 다른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보았는데, 결혼 불안정성이란 낮은 결혼만족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도 아니고 결혼의 종식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비록 결혼해체가 최종적인 결과는 아닐지라도 부부의 현재 결혼의 사회적인 종식에 초점을 두어 결혼의 불안정성을 정의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최연실(1987), 김선영(1989) 등은 결혼 불안정성을 ‘해체에 이르러 최후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라도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결혼을 부부가 와해시키려는 성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동

7) * 결혼와해 : 자발적 해체(이혼·별거)뿐 아니라 비자발적 해체(사망·유기)를 포함한다.

* 이혼 : 부부 생존 중에 법적으로 결혼관계를 해소하는 것.

* 낮은 결혼의 질 : 적응이 안되고 만족도가 낮으며, 관계에 대한 불만과 부적절한 기능을 지각하는 것.

*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가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김선영, 1989, 김미숙, 1989에서 재인용)

원(1987) 역시 잠재적 불안정성을 ‘부부 상호간의 심리상태가 이혼상태인 위기 경향적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미숙, 1989에서 재인용).

이러한 개념 정의는 결혼 불안정성의 지표로 이혼과 별거를 들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들(Bumpass & Sweet, 1972; Levinger, 1979; Lewis & Spanier, 1979; Udry, 1983)에서의 정의와는 다를 수 있다(전춘애·박성연, 1993).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에 인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낮아졌다고 이혼으로 곧 연결되지 않고 결혼관계를 지속하는 부부들이 많아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단순히 이혼이나 별거의 현상으로만 평가할 수 없으며, 이미 사회적인 의미의 결혼생활이 종식된 부부들의 결혼생활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안정성을 현재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의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결혼안정성과 관련된 기타 변인들

가족분화수준(부모-자녀분화)과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과 결혼안정성과의 관련성은 앞서 제시하였으며, 본 장에서는 개인의 배경변인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안정성과 관련된 배경변인들로 성별, 결혼지속 년 수, 결혼유형, 사회경제적 지위에 해당되는 소득, 교육수준, 직업 등을 살펴보았고 이 외에 자녀유무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과 결혼안정성과의 관련성에 대해 한남제(1975)는 결혼생활 지속에 대한 태도는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데 반하여 가족생활에서 느끼는 실제적인 평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 가지는 기대에 현실이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미숙, 1989에서 재인용).

결혼지속 년 수와 결혼안정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eaton & Albrecht(1991)는 부부가 함께 오래 살아갈수록 그들의 경험이 반드시 긍정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혼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하여 결혼안정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Booth & White는 부인의 경우 결혼지속 년 수의 기간이 길수록 이혼에 대한 생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Huber & Spitze도 결혼기간은 양 배우자 모두에게 이혼에 대한 생각을 감소시켰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한남제(1975)의 연구에서는 결혼안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연령층이 20대, 3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일수록 더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결혼지속년수와 결혼안정성의 관계는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결혼유형과 결혼안정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중매결혼의 경우보다 연애결혼의 경우가 높은 안정도를 보이며, 특히 연애결혼의 경우 여성의 결혼안정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한남제, 1984; 김미숙, 1989에서 재인용).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안정성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 자산이 있는 경우(예: 집 소유)는 그 자산을 해체시키지 않으려는 생각이 이혼 억제요인⁸⁾으로 작용하여 결혼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수입자

8) 이혼 억제 요인에는 결혼을 유지하는 유인의 매력적 요소와 결혼해체에 따르는 장애요소라고 할 수 있

체 보다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수입이 적은 경우에 그리고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현·이성희, 1988; Levinger, 1979; Bahr & Calling, 1984; Booth et al., 1984; South & Spitz, 1986; Heaton & Albrecht, 1991; 전춘애, 1994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결과도 있어서 Cherlin(1979)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취업률이 높아지면 이혼에 대한 대안⁹⁾ 수준이 증가하여 오히려 결혼 불안정성을 야기 시킨다고 하였고, 취업주부의 경우 부과되는 시간 구속으로 가사노동의 어려움과 부부간 상호작용의 감소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야기되고 결국 결혼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다(전춘애·박성연, 1993; South & Spitz, 1986). 또한 이러한 수입, 교육수준,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요인들이 결혼안정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다른 요인들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결과(Glenn & Supancic, 1984)도 제시되고 있어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 자녀의 존재 유무가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자녀의 존재는 불행한 부부들의 결혼을 지연시킬 수 있다(Glenn & McLanahan, 1982)는 결과가 있으며, 반면 자녀가 있는 미국 부부들은 무자녀 부부보다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적고(Hill, 1988), 자녀로 인하여 더 많은 재정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결혼해체의 가능성이 많다(Campbell, 1975, 전춘애, 1994에서 재인용)는 보고도 있어서 사회

는 외적압력이 있다.

* 결혼을 유지시키는 유인: 배우자에 대한 존경 · 동료감 · 성적 만족 · 우애성과 같은 애정적 보상과 남편의 소득 · 주택소유 · 남편의 교육 ·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보상, 그리고 종교 · 교육 · 연령 등과 같은 사회적 지위가 포함된다.

* 외적압력: 자녀와 결혼관계에 대한 의무감 · 종교와 관련된 윤리적 도덕감 · 1차 집단의 소속 · 사회적 낙인 · 법적 경제적 장애 등이 포함된다.

9) 이혼에 대한 대안적 요소에는 결혼해체 후 선택 가능한 대상으로부터의 성적 · 애정적 보상과 주부의 경제적 독립가능성과 같은 경제적보상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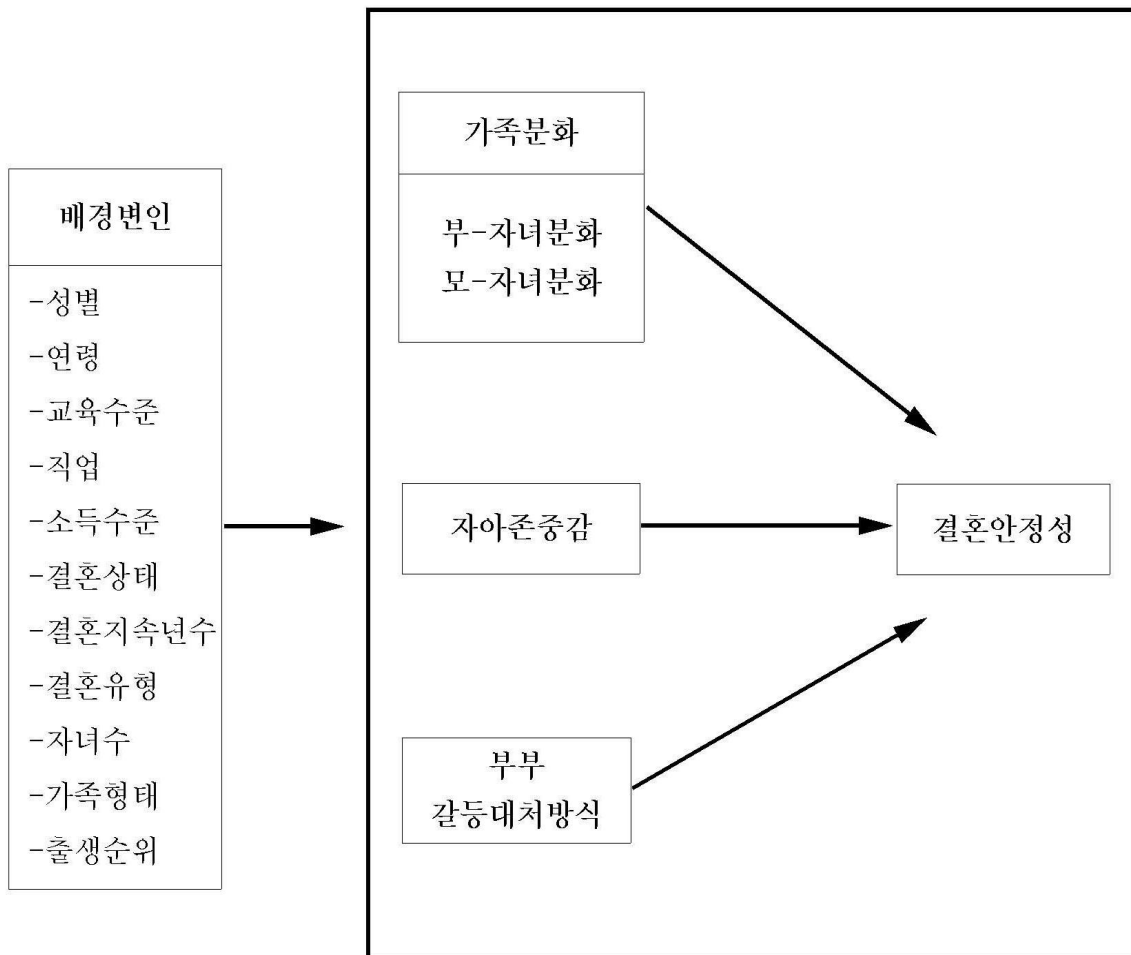
경제적 지위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유무도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진춘애, 1994).

이상과 같이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은 전반적으로 일반화 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배경과 부모-자녀분화,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법과 결혼안정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 중 어떠한 변인이 현재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기혼남녀의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부모-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과 결혼안정성의 전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일반 배경변인에 따라 기혼남녀의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부모-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과 결혼안정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부모-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정도에 따라 결혼안정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1 가족분화(부모-자녀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은 어떠한가?

3-2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은 어떠한가?

3-3 부부 갈등대처방식(이성적 대처방식, 갈등회피,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의 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4> 배경변인, 가족분화(부모-자녀분화), 자아존중감,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 하였다.

1) 부모-자녀분화(Parent-Child Differentiation)

연결성과 분리성의 균형의 정도를 조정해 주는 가족 내 거리조절 유형 또는 상호작용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의 결혼 전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자녀간의 연결성과 분리성의 균형을 의미한다.

① 아버지와 나의 가족분화

아버지와 자녀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상호작용 유형.

② 어머니와 나의 가족분화

어머니와 자녀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상호작용 유형.

2)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말한다.

3) 부부 갈등대처방식(conflict-coping behaviors of couples)

결혼생활에서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유형으로 이성적 대처방식, 회피,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로 분류하였다. 각 하위유형의 기본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성적 대처

갈등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문제를 논의하거나 의견을 타협하는 등의 대처방식을 의미한다.

② 회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등의 대처 방식을 의미한다.

③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비난, 욕설, 헐박 등으로 언어적 공격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공격의 대처방식을 의미한다.

4) 결혼안정성(Marital Stability)

결혼해체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부부 상호간의 심리상태가 결혼을 지속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결혼안정성의 지표로 보았다. 즉, Booth (1983) 등의 견해에 따라 결혼안정성을 해체에 이르러 최후의 결과를 가져 오지는 않았을지라도 현재의 결혼생활을 부부가 지속시키려는 성향의 정도로 정의한다.

IV.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들은 5가지의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설문문항은 조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문항인 11개의 문항과 부모-자녀분화에 관한 문항이 11개 문항이며, 자아존중감에 관한 5개의 문항, 부부 갈등대처방식에 관한 16개 문항과 그리고 12개의 결혼안정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여 총 5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기 위한 문항으로 기혼남녀 모두에게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결혼기간과 결혼상태 및 결혼형태와 자녀수, 가족형태 그리고 출생순위 등의 11개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 가족분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각 하위체계의 분화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Anderson과 Sabarelli(1992)가 개발한 가족분화 척도(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 DIF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체계 내의 연결성과 분리성의 균형의 정도를 조정해 주는 가족 내 거리조절 유형 또는 상호작용의 유형을 나타낸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았음’의 1점에서 ‘매우 그랬음’의 5점 리커트형 척도이며 6개의 긍정적 내용과 5개의 부정적 내용의 총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분화 척도는 순환식 질문(circular questioning)방식의 자기 보고식 질문으로 가족의 하위체계의 기능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측정하고, 각 하위체계의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전 부모와의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하므로 자녀와 아버지와의 분화, 자녀와 어머니와의 분화만을 살펴 보았으며 방식은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즉,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지각,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대상만 다르게 동일한 내용으로 된 질문지에 각각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전 부모-자녀 하위체계의 분화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이므로 설문문항을 과거 회상형으로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의 문항은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로 수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의 합이 가족분화의 점수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체계의 분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분화가 잘 이루어진 것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낮은 수준의 분화를 보이는 것이다.

역코딩 문항은 2번, 4번, 6번, 7번, 9번의 부정적 문항이 해당되며, 선행 연구에서(Chun & MacDermid 1997)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77 - .88에 이른다고 보고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분화의 하위체계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부-자녀분화가 .86 으로 나타났으며 모-자녀분화는 .84 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척도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관심의 정도나 가치 평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척도를 Rosenberg(1965)의 척도와 이에 기초한 김오남(1998)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총 5개의 긍정적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범위인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5 이다.

4) 부부 갈등대처방식 척도

부부 갈등대처방식 척도는 McCubbin, Karson, Olson 등(1982) 가족대처전략 척도(F-Cpes)와 Folkman과 Lazarus(1980), 송말희(1990) 등의 척도를 기초한 최규련의(1994)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부 갈등대처방식 척도는 이성적 대처(1번, 4번, 7번, 11번, 14번), 회피(2번, 5번, 9번, 12번, 15번),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3번, 6번, 8번, 10번, 13번, 16번)의 세 개의 하위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행동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범위인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역코딩 문항은 없으며, 유형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갈등대처방식을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유형에 대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이성적 대처가 .65, 회피는 .55,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은 .81로 나타났다.

5) 결혼안정성 척도

결혼 안정성 척도는 Booth(1983)와 동료들이 개발한 결혼불안정성 척도(Marital Instability Index : MII)에서 안정성 척도를 고안하여서 작성하였다. Booth(1983)의 결혼 불안정성 척도(Marital Instability Index : MII)를 기초한 김미숙(1989)의 척도와 장춘미(2001)의 척도에서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 대한 위기 경향적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보이는 문항들과 부부관계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긍정적인 문항 5문항, 부정적인 문항 6문항으로 총 12문항을 구성하였다.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결혼안정성을 결혼의 상태, 즉 이혼이나 별거 여부에 근거하여 정의 하고 있다(Larson & Holman, 1994).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권에서는 많은 부부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외부압력이나 대안의 부족으로 실제 이혼 실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강혜숙, 2003).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의 안정성을 이혼이나 별거의 상태와 더불어 이혼이나 별거를 향한 주관적인 경향까지 포함시킬 필요

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용에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결혼생활을 와해시키려는 성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과 자신의 결혼을 후회하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가의 문항, 그리고 현재 자신의 결혼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성향의 정도와 부부간의 유대감을 어느 정도 느끼는가하는 정서적·인지적 평가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혼안정성 문항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범위인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화 하였으며, 1, 2, 4, 5, 8, 9, 10, 11번 문항은 역코딩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을 유지하고자하는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92 이다.

<표 1> 각 변인별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

척도의 종류		문항수	점수범위	역산문항	Cronbach's alpha
가족분화	부-자녀분화	11	11 ~ 55	2,4,6,7,9	.86
	모-자녀분화	11	11 ~ 55	2,4,6,7,9	.84
자아존중감		5	5 ~ 25	역산문항 없음	.85
부부갈등 대처방식	이성적대처방식	5	5 ~ 25	역산문항 없음	.65
	갈등회피	5	5 ~ 25	역산문항 없음	.55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6	5 ~ 30	역산문항 없음	.81
결혼안정성		12	5 ~ 60	1,2,4,5,8,9,10,11	.92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지속 년 수가 10년까지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혼지속 년 수를 10년까지의 기혼남녀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 이하의 부부가 결혼생활 10년을 넘어서 부부들 보다 이혼율이 높다는 통계청(2003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의 자료에 근거해서 결혼지속 년 수를 10년까지로 제한하였으며 둘째, 결혼기간 10년 이내의 시기가 두 사람이 결합한 후 서로 간의 적응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점과 셋째, 이 기간의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의 이혼과 부부 갈등 관련 상담이 다른 결혼기간에 비하여 높다는 점 때문이었다(한국 가정 폭력 상담소, 2002).

또한 기혼남녀 각자가 결혼하기 전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현재 자신의 갈등대처방식과 결혼안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리라 예측되므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 너무 어린시절부터 부재·사망인 경우와 부모님 두 분 모두 부재·사망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사용된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응답하는 설문지법(self-reported)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할 척도들에 대한 적절성과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2004년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기혼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 검증과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문항들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 질문지를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은 2004년 4월 2일부터 4월 27일 동안 실시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본 연구자에 의해 주의사항 및 연구의 목적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은 조사원 7인과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조사원들은 유치원 2곳, 회사, 교회, 은행 등을 통해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접회수가 어려운 일부의 경우는 우표가 붙여진 봉투 안에 설문지를 넣고 응답 후에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380부가 배부되어 총 33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와 모 중에 한 명만 기재된 경우, 결혼지속 년 수가 10년을 넘는 경우 등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는 제외되어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어진 설문지는 총 310부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 310명으로 남자는 156명(50.3%), 여자는 154명(49.7%)였으며, 연령은 20대가 46명(14.8%), 30대가 228명(73.5%), 40대가 36명(11.6%)으로 30대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33.85세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28.1%였고, 전문대졸이 18.7%였으며, 대졸이상인 5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응답자의 학력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30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직업은 사무직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 및 전업주부가 23.2%였고, 이 외에 전문직이 11%, 전문기술직은 10.6%였으며 판매기술직이 7.1%, 관리직이 6.5%, 단순노무직이 4.2%, 자영상공업이 3.5%, 기타는 3.9%였다. 전업주부가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기혼여성의 경우 비취업주부가 많았기 때문이며, 취업주부의 경우에도 사무직이 많았으므로 사무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소득에 있어서는 200 - 300만원이 3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00 - 200만원이 21.6%로 많았으며, 300 - 400만원이 17.1%였고, 400 - 500만원은 16.5%, 500만원 이상은 10.6%를 나

타냈으며, 100만원 이하가 1.6%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의 경제적 수준은 중상위권을 나타냈다. 결혼상태는 기혼(초혼)이 97.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재혼이 2.3%였다. 결혼의 유형은 연애혼 72.9%, 중매반·연애반의 절충혼은 15.2%였으며, 중매혼이 11.9%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다수가 연애혼이었다. 결혼지속 년 수는 5년에서 10년 미만(60 - 120개월)이 5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년에서 5년 미만(24 - 60개월)이 27.7%를 나타냈고 2년 미만(24개월 미만)은 18.7%의 비율을 보여서 5년에서 10년 사이의 기간이 가장 높았다. 자녀는 2명(39.4%)의 자녀를 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명의 자녀(30.0%), 무자녀(23.2%), 3명의 자녀(5.5%), 4명의 자녀(1.9%)의 순서로 나타나서 보통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2명 정도의 자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자녀의 비율이 그 다음으로 많은 이유는 결혼지속 년 수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응답자들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가족의 형태에 있어서는 핵가족이 87.4%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핵가족의 형태여서 부부 또는 부모·자녀의 형태가 일반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확대가족은 12.6%를 나타냈다. 응답자들의 출생순위는 막내가 2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장남이 19.0%, 장녀가 17.7%를 나타냈으며, 차녀는 14.8% , 차남이 12.6%, 중간자녀가 7.7%였고 외동이 5.2%를 나타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310)

변인	분류	N	(%)	변인	분류	N	(%)
성별	남자	156	50.3	연령	20대	46	14.8
	여자	154	49.7		30대	228	73.5
학력	고졸	87	28.1		40대	36	11.6
	전문대졸	58	18.7	결혼 상태	기혼	303	97.7
	대졸	117	37.7		재혼	7	2.3
	대학원 이상	48	15.5	결혼 유형	중매	37	11.9
결혼 지속 년수	1년~2년 미만	58	18.7		연애	226	72.9
	2년~5년 미만	86	27.7		절충형	47	15.2
	5년~10년 미만	166	53.5	가족 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271	87.4
자녀	0명	72	23.2				
	1명	93	30.0				
	2명	122	39.4				
	3명	17	5.5				
	4명	6	1.9				
출생 순위	장남	59	19.0	직업	무직 및 전업주부	72	23.2
	장녀	55	17.7		단순노무직	13	4.2
	차남	39	12.6		판매기술직	22	7.1
	차녀	46	14.8		사무직	93	30.0
	중간자녀	24	7.7		관리직	20	6.5
	막내	71	22.9		전문기술직	33	10.6
	외동	16	5.2		전문직	34	11.0
					자영상공업	11	3.5
소득	100만원이하	5	1.6	기타	12	3.9	
	100~200만원	67	21.6	합계	310	100	
	200~300만원	101	32.6				
	300~400만원	53	17.1				
	400~500만원	51	16.5				
	500만원이상	33	10.6				
합계	310	100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 결혼안정성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2> 배경변인에 따른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 결혼안정성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과 ANOVA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차이 조사를 위해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분산의 동질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에 대해서는 비모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3>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정도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산의 동질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에 대해서는 비모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의 차이 검증을 위해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¹⁰⁾ 아버지-자녀분

10) 집단의 분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한 $\bar{M} \pm 2 \frac{SD}{}$ 를 이용하여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화와 어머니-자녀분화가 '상'인 집단은 연결성과 분리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져 가족이 효율적으로 기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가 '중'인 집단은 '상'인 집단보다 연결성과 분리성의 균형이 덜 융통적인 방식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가 '하'인 집단은 낮은 가족분화를 나타내며, 연결성과 분리성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자아존중감도 부모-자녀분화와 마찬가지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상'인 집단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하'인 집단은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으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고 부적절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각 하위유형인 이성적 대처방식, 갈등회피, 부정적 감정·행동표출도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상', '중', '하'로 나누어 이에 따라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4>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 자아존중감과 부부 갈등대처방식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0.0프로그램에서 실시되었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거주자로 한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결혼지속 년 수 10년까지의 모든 부부들에게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대표성에 있어서 제한점을 갖는다.

둘째, 부부의 결혼안정성을 조사하면서 부부를 한 쌍으로 조사하지 않고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부간의 상호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셋째,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자녀분화를 경험적 회상에 의해 성인 자녀가 지각하는 관점에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외에 가족 하위체계 내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V.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도록 하겠다.

1. 기혼남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부모-자녀분화),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과 결혼안정성의 전반적인 경향

<연구문제 1>인 조사대상자의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영역과 결혼안정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표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원가족에서 경험한 아버지-자녀분화는 55점 만점에서 평균점수가 36.04점(SD 7.14, 점수범위 5점-55점)으로 산출되었고, 어머니-자녀분화도 마찬가지로 55점 만점에서 37.95점(SD 6.68, 점수범위 5점-55점)으로 산출되었으며 아버지-자녀분화보다는 분화수준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부모-자녀분화 수준은 중간정도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25점 만점에 평균점수가 17.74점(SD 3.5, 점수범위 5점-25점)으로 산출되어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중상의 수준 정도로 나타났다.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영역 중 이성적 대처방식은 25점 만점에서 17.99점(SD 2.89, 점수범위 5점-25점)으로 나타났으며, 갈등회피는

12.49점(SD 3.18, 점수범위 5점-25점)이었고,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의 대처방식은 12.90점(SD 4.28, 점수범위 5점-30점)으로 다소 낮게 산출되어서 전반적으로 이성적 대처방식이 갈등회피와 부정적 감정·행동표출보다 다소 높은 평균점수로 나타났다.

결혼안정성은 60점 만점에 평균점수가 47.33점(SD 8.69, 점수범위 12점-60점)으로 산출되어 조사대상자의 결혼안정성은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 부모-자녀분화, 부부 갈등대처방식, 결혼안정성,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경향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
부모-자녀분화	아버지-자녀분화	310	36.04	7.14	11 ~ 55
	어머니-자녀분화	310	37.95	6.68	11 ~ 55
자아존중감		310	17.74	8.69	5 ~ 25
부부 갈등대처방식	이성적대처방식	310	17.99	2.85	5 ~ 25
	갈등회피	310	12.49	3.18	5 ~ 25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310	12.90	4.28	5 ~ 30
결혼안정성		310	47.33	3.54	12 ~ 60

2. 일반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분화(부모-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 결혼안정성의 차이

<연구문제 2>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특성에 따른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 자아존중감, 결혼안정성 그리고 부부 갈등대처방식(이성적 대처, 갈등회피,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이 때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에서 동질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신뢰를 할 수 없는 수치이므로 따로 비모수로 분석하였다. 비모수 분석을 실시한 변인은 결과표인 <표 4>와 <표 4-1>에 χ^2 값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 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산출된 결과는 <표 4>의 일반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자녀분화, 자아존중감, 결혼안정성과 <표 4-1>의 일반 배경변인에 따른 부부 갈등대처방식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버지-자녀분화는 성별($t=-2.00$, $p<.01$), 연령($F=6.64$, $p<.01$), 결혼지속년 수($F=4.95$, $p<.01$), 출생순위($\chi^2=16.44$,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데, 성별의 경우 기혼여성 집단이 기혼남성보다 아버지-자녀분화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연령의 집단이 30, 40대의 연령집단보다 분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지속년 수는 2년 미만 기간의 집단이 2년에서 10년 미만 기간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막내가 장남, 차남, 중간자녀, 외동보다 아버지-자녀분화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자녀분화는 연령($F=6.43, p<.01$), 직업($F=2.09, p<.05$), 자녀수($F=2.40, p<.05$), 출생순위($F=3.66, p<.01$), 결혼지속 년 수($F=8.6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서, 20대 연령의 집단일 때 분화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 있어서는 단순노무직이 전문직, 전문기술직, 기타 집단(학생), 사무직, 무직 및 전업주부, 관리직보다 어머니-자녀분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어머니-자녀분화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집단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아버지-자녀분화와 마찬가지로 막내일 경우 분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지속 년 수는 5년에서 10년 미만의 기간보다 1년에서 5년 미만 기간의 집단이 어머니-자녀분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연령($F=5.44, p<.01$), 직업($F=2.46, p<.05$), 결혼지속 년 수($F=3.17, p<.05$)였다. 연령에 있어서는 20대 연령집단이 30, 40대 연령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은 무직 및 전업주부가 자영상공업이나 기타의 집단(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고, 결혼지속 년 수는 2년 미만 기간의 집단이 5년에서 10년 기간의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안정성은 연령($F=5.97, p<.01$), 교육수준($F=5.87, p<.01$), 결혼지속 년 수($X^2=21.38,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20대의 연령집단이 30, 40대의 연령집단보다 결혼안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전문대졸이나 대졸이상 보다 결혼안정성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속 년 수는 2년 미만 기간의 집단이 2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기간까지의 집단보다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자녀분화, 자아존중감, 결혼안정성의 차이

변인	분류	아버지-자녀 분화			어머니-자녀 분화			자아존중감			결혼안정성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성별	남자	35.23	7.59		37.32	7.04		17.62	3.63		47.77	8.56	
	여자	36.85	6.58		38.59	6.26		17.87	3.44		46.88	8.82	
	t		-2.00	**		-1.67			-.63			.89	
연령	20대	37.58	7.00	A	39.06	7.21	A	18.02	3.66	A	48.65	7.63	A
	30대	36.32	7.04	B	38.29	6.51	B	17.97	3.49	B	47.78	8.61	B
	40대	32.27	6.89	B	34.33	6.04	B	15.94	3.22	B	42.77	9.28	B
	F		6.64	**		6.43	**		5.44	**		5.97	**
교육	고졸	34.77	6.68		36.67	6.58		17.20	3.54		44.74	8.46	A
	전문대졸	36.37	6.29		38.72	6.05		17.87	3.26		49.15	7.93	B
	대졸이상	36.59	7.60		38.35	6.89		17.98	3.61		48.06	8.81	B
	F		1.94			2.27			1.43			5.87	**
직업	무직 및 전업 주부	36.81	6.53	B	37.79	6.37	B	17.29	3.31	A	47.50	6.91	
	단순노무직	30.69	7.79	A	32.76	5.57	A	16.53	4.85	AB	47.07	6.75	
	판매기술직	32.77	6.25	AB	35.22	4.89	AB	17.13	2.39	AB	45.40	8.25	
	사무직	36.61	7.25	B	38.70	7.43	B	17.36	3.50	AB	47.31	9.70	
	관리직	35.80	7.32	B	37.25	6.92	B	16.95	4.37	AB	44.60	9.88	
	전문기술직	36.36	7.75	B	39.15	6.16	B	19.15	3.49	AB	47.33	9.90	
	전문직	36.32	7.33	B	39.26	5.87	B	19.35	3.42	AB	50.05	9.40	
	자영상공업	36.90	6.26	B	36.90	6.99	AB	17.63	2.54	B	45.81	8.06	
	기타	36.66	7.03	B	38.75	6.82	B	18.91	3.20	B	48.58	5.40	
	F		1.74			2.09	*		2.46	*		.87	

*p<.05 **p<.01 ***p<.001

<표 4> 계속

변인	분류	아버지-자녀 분화			어머니-자녀 분화			자아존중감			결혼안정성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소득	100만원이하	38.60	5.98		39.40	4.03		18.40	4.21		42.20	9.49	
	100~200만원	36.38	7.19		37.62	6.71		17.38	3.60		47.02	8.00	
	200~300만원	36.33	6.65		37.79	6.64		17.62	3.16		47.49	8.16	
	300~400만원	36.16	8.04		38.71	7.40		17.60	3.52		48.05	7.55	
	400~500만원	35.13	7.97		37.72	7.08		18.80	4.12		47.07	10.54	
	500만원이상	35.24	5.99		38.00	5.44		17.36	3.37		47.48	10.31	
	F		.43			.23		1.20				.45	
가족 형태	핵가족	36.23	7.02		38.09	6.59		17.86	3.51		47.66	8.29	
	확대가족	34.69	7.92		36.97	7.33		16.94	3.65		45.05	10.96	
	t		1.26			.97		1.51			1.43		
자녀수	0명	37.88	7.30		39.38	6.88		18.31	3.43		49.48	8.10	
	1명	36.11	7.29		38.56	7.15		17.60	3.58		45.55	10.76	
	2명	34.95	7.00		36.99	6.27		17.59	3.68		47.71	7.26	
	3명	34.76	6.41		35.23	5.50		17.00	2.87		45.52	6.96	
	4명	38.50	2.81		38.33	3.72		18.50	2.66		46.50	5.95	
	F		2.26			2.40	*		.82			2.36	
출생 순위	장남	34.88	7.90	A	36.83	6.17	AB	17.49	3.70		48.55	7.80	B
	장녀	37.12	6.34	AB	39.36	6.27	BC	17.94	3.35		48.27	7.78	B
	차남	34.43	7.65	A	38.17	6.57	ABC	17.58	3.26		47.97	8.24	B
	차녀	35.52	6.46	AB	36.08	6.10	AB	17.56	3.18		45.91	8.14	AB
	중간자녀	34.37	6.50	A	35.70	4.88	A	16.79	3.18		45.95	8.00	AB
	막내	38.52	6.14	B	40.21	6.87	C	18.40	3.59		47.71	9.78	B
	외동	33.50	9.66	A	35.37	9.50	A	17.43	5.21		42.50	11.90	A
	◆ F/X ²	X ²	16.44	*	F	3.66	**	F	.83		F	1.50	

*p<.05 **p<.01 ***p<.001

- ◆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에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난 변인에 대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비모수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값을 X²값으로 표시하였다.

<표 4> 계속

변인	분류	아버지-자녀 분화			어머니-자녀 분화			자아존중감			결혼안정성		
		M	SD	D	M	SD	D	M	SD	D	M	SD	D
결혼 지속 년수	1년~2년미만	38.51	7.35	B	40.24	7.30	B	18.74	3.17	B	51.68	6.02	B
	2년~5년미만	36.12	7.53	A	39.09	6.70	B	17.76	3.75	AB	46.36	10.07	A
	5년~10년미만	35.13	6.69	A	36.56	6.13	A	17.39	3.49	A	46.31	8.28	A
	♦ F/ X^2	F	4.95	**	F	8.65	***	F	3.17	*	X^2	21.38	***
결혼 상태	기혼	36.03	7.20		37.98	6.72		17.74	3.55		47.34	8.70	
	재혼	36.42	4.11		36.71	4.85		17.71	3.19		46.71	8.86	
	t		-1.14			.49			.02			.19	
결혼 유형	연애	35.82	7.21		37.92	6.75		17.92	3.27		47.85	8.38	
	중매	36.05	7.84		37.35	7.04		16.91	4.60		45.64	9.58	
	절충형 (연애반 중매반)	37.06	6.26		38.53	6.14		17.55	3.80		46.14	9.34	
	F		.58			.32			1.37			1.54	

*p <.05 **p <.01 ***p <.001

♦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에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난 변인에 대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비모수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값을 X^2 값으로 표시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특성에 따른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 자아존중감과 결혼안정성의 차이를 살펴본 것에 이어서 일반적인 배경특성에 따른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영역인 이성적 대처방식, 갈등회피,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에 대하여 각각의 영역별

로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성적 대처방식은 연령($F=11.28$, $P<.001$), 결혼지속 년 수($F=4.57$,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서, 연령의 경우에는 40대 연령집단이 20, 30대 연령집단 보다 이성적 대처방식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기간은 2년 미만 기간의 집단보다 5년에서 10년 미만 기간의 집단이 이성적 대처방식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회피는 연령($F=3.10$, $p<.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20대의 연령집단이 30, 40대 보다 갈등회피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은 직업($F=2.40$, $p<.05$), 결혼지속 년 수($F=5.52$,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을 살펴보면, 관리직에서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직에서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속 년 수는 2년 미만 기간의 집단이 2년에서 5년 미만, 5년에서 10년 미만 기간의 집단보다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른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경변인 중 결혼지속 년 수는 갈등회피 영역을 제외하고 이성적 대처방식과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년 미만 기간의 집단이 5년에서 10년 미만 기간의 집단보다 갈등 상황 시 이성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부부 갈등대처방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배경변인은 연령, 직업이 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배경변인에는 성별, 교육, 소득, 가족형태, 자녀수, 출생순위, 결혼상태와 결혼유형 이었다.

<표 4-1> 배경변인에 따른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차이

변인	분류	갈등대처방식								
		이성적 대처방식			갈등회피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M	SD	D	M	SD	D	M	SD	D
성별	남자	17.80	3.09		12.67	3.33		12.51	4.67	
	여자	18.17	2.66		12.30	3.02		13.28	3.83	
	t		-1.12			1.01			-1.58	
연령	20대	18.08	2.47	B	11.71	2.95	A	12.41	4.28	
	30대	18.29	2.75	B	12.49	3.23	B	12.81	3.94	
	40대	15.91	3.42	A	13.47	2.96	B	14.05	5.99	
	F		11.28 ***			3.10 *			1.65	
교육	고졸	17.59	3.25		13.05	3.25	A	13.45	3.99	
	전문대졸	18.20	2.31		11.82	3.19	AB	12.31	4.18	
	대졸이상	18.12	2.86		12.42	3.11	A	12.81	4.45	
	F		1.13			2.70			1.32	
직업	무직 및 전업주부	17.93	2.61	AB	12.51	3.19	AB	13.19	3.72	ABC
	단순노무직	17.92	2.06	AB	13.69	3.37	B	12.38	4.31	AB
	판매기술직	16.40	3.12	A	13.63	3.55	B	13.22	4.82	ABC
	사무직	18.25	3.04	AB	12.34	3.24	AB	12.65	4.32	ABC
	관리직	16.80	3.47	AB	12.85	3.15	AB	15.50	5.34	C
	전문기술직	18.60	2.82	B	12.03	2.43	AB	12.45	4.13	AB
	전문직	18.58	2.72	B	12.41	3.16	AB	10.91	3.82	A
	자영상공업	18.18	2.63	AB	11.27	2.93	A	13.81	4.49	ABC
	기타	17.66	2.53	AB	12.08	3.87	AB	14.66	3.55	BC
	F		1.78			.95			2.40 *	

*p<.05 **p<.01 ***p<.001

<표 4-1> 계속

변인	분류	갈등대처방식								
		이성적 대처방식			갈등회피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M	SD	D	M	SD	D	M	SD	D
소득	100만원이하	17.80	5.40		13.00	3.16		17.00	6.78	B
	100~200만원	18.35	2.37		12.95	3.47		13.43	4.13	A
	200~300만원	17.87	2.80		12.72	3.08		12.19	3.82	A
	300~400만원	17.39	3.25		12.43	3.34		12.88	4.38	A
	400~500만원	18.21	3.22		12.07	2.97		13.74	5.01	A
	500만원이상	18.24	2.52		11.48	2.80		12.06	3.66	A
	F		.81			1.25			2.36	
가족 형태	핵가족	18.05	2.92		12.45	3.15		12.90	4.28	
	확대가족	17.56	2.62		12.76	3.42		12.87	4.32	
	t		.98			-.58			.04	
자녀수	0명	18.40	2.47		12.09	3.01		11.91	3.88	
	1명	17.93	3.03		12.56	3.25		13.01	4.53	
	2명	17.95	2.92		12.78	3.37		13.29	4.12	
	3명	17.17	3.00		12.11	2.17		13.70	5.16	
	4명	16.83	4.35		11.00	1.89		12.66	4.96	
	F		.95			.93			1.38	
출생 순위	장남	17.67	3.00		12.77	3.57		12.66	4.58	
	장녀	18.29	2.57		12.00	2.86		12.80	3.44	
	차남	18.58	3.10		12.66	2.85		12.64	3.68	
	차녀	17.58	2.87		12.73	2.99		14.17	4.11	
	중간자녀	17.50	3.37		13.12	3.43		12.41	4.48	
	막내	18.26	2.61		12.08	3.11		12.64	4.25	
	외동	17.31	3.36		12.81	4.00		12.93	6.90	
	◆ F/X ²	F	1.01		F	.74		X ²	6.95	

*p<.05 **p<.01 ***p<.001

<표 4-1> 계속

변인	분류	갈등대처 방식								
		이성적 대처방식			갈등회피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		
		M	SD	D	M	SD	D	M	SD	D
결혼 지속 년수	1년~2년미만	18.82	2.58	A	12.32	2.94		11.27	3.81	A
	2년~5년미만	18.23	2.69	AB	11.91	3.34		13.01	4.07	B
	5년~10년미만	17.57	3.02	A	12.84	3.15		13.40	4.43	B
	◆ F/X ²	F	4.57	*	F	2.50		F	5.52	**
결혼 상태	기혼	17.99	2.85		12.52	3.20		12.88	4.26	
	재혼	18.00	4.61		11.14	1.77		13.57	5.25	
	t		-0.1			1.13			-0.41	
결혼 유형	연애	18.07	2.67		12.46	3.30		12.56	4.04	
	중매	17.43	3.81		12.91	3.09		14.13	5.39	
	절충형 (연애반 중매반)	18.04	3.09		12.29	2.62		13.55	4.30	
	F		.78			.42			2.81	

*p<.05 **p<.01 ***p<.001

- ◆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에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난 변인에 대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비모수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값을 X²값으로 표시하였다.

3.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부모-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정도에 따른 결혼안정성과의 차이

<연구문제 3>인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부모-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에 따른 결혼안정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3>의 하위 연구문제 3-1, 3-2, 3-3의 구체적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부모-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영역을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분석의 결과표는 <표 5-1>, <표 5-2>, <표 5-3>에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2>와 마찬가지로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에서 동질성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들은 신뢰를 할 수 없는 수치이므로 따로 비모수로 분석하였다. X^2 값은 <표 5-1>, <표 5-2>, <표 5-3>의 결과표에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3> 3-1인 가족분화(부모-자녀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은 어떠한가?

<표 5-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버지-자녀분화의 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은 아버지-자녀분화 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하'인 집단보다 결혼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아버지-자녀분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결혼안정성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자녀분화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자녀분화 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하’의 집단보다 결혼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어머니-자녀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부모-자녀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

변인	분류	결혼안정성		
		M	SD	D
부-자녀분화	상	50.39	10.05	C
	중	47.11	8.18	B
	하	44.01	6.80	A
	F/X ²	X ²	25.63	***
모-자녀분화	상	50.19	8.54	C
	중	47.21	7.71	B
	하	44.40	9.06	A
	F/X ²	F	11.56	***

*p<.05 **p<.01 ***p<.001

<연구문제 3> 3-2인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은 어떠한가?

<표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하’인 집단보다 ‘중’, ‘상’의 집단으로 갈수록 결혼안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도 높아짐을 나타냈다.

<표 5-2>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

변인	분류	결혼안정성		
		M	SD	D
자아존중감	상	51.41	6.19	C
	중	48.44	7.00	B
	하	40.29	10.05	A
	X^2	X^2	66.86	***

*p<.05 **p<.01 ***p<.001

<연구문제 3> 3-3인 부부 갈등대처방식(이성적 대처방식, 갈등회피,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의 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3-3인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은 <표5-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부 갈등대처방의 세 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 결혼안정성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이성적 대처방식이 ‘하’인 집단보다 ‘중’, ‘상’의 집단일수록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나서 부부의 갈등 시 이성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안정성도 높아짐을 나타냈으며, 갈등회피와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은 ‘상’인 집단보다 ‘중’, ‘하’인 집단일수록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나서 부부의 갈등 시 갈등회피와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은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음을 나타냈다.

<표 5-3>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

변인		분류	결혼안정성		
			M	SD	D
부부갈등 대처방식	이성적 대처방식	상	48.98	6.17	C
		중	45.64	7.50	B
		하	41.93	10.05	A
		F	F	16.55	***
	갈등회피	상	44.71	9.60	A
		중	49.73	7.11	B
		하	50.74	6.99	B
		F	F	12.02	***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상	45.35	7.59	A
		중	50.32	6.16	B
		하	52.04	6.91	B
		F	F	16.30	***

*p<.05 **p<.01 ***p<.001

4. 배경변인, 부모-자녀분화,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문제 4>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과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들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설명력의 증가를 보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I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배경변인만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II 단계에서는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를 추가하였고, III 단계에서는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영역인 ‘이성적 대처방식’, ‘갈등회피’,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을 추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리고 IV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델 I 인 1 단계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만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지속 년 수($\beta=-.29$, $p<.01$)와 자녀의 수($\beta=.18$, $p<.05$), 가족 형태($\beta=.13$,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결혼안정성은 낮아짐을 나타내며, 자녀가 있을 경우, 그리고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일 경우 결혼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단계에서 실시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변인은 결혼안정성을 총 6% 설명하였다.

모델 II 는 2 단계로서 일반적 배경변인에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를 추가하였을 경우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결혼지속 년 수($\beta=-.28$, $p<.01$)와 자녀의 수($\beta=.17$, $p<.05$)는 1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새로운 변인의 추가 후 가족형태는 결혼안정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결혼유형($\beta=.13$, $p<.05$)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연애혼일 경우가 그 외의 유형(중매나 절충혼)에 비해 결혼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아버지-자녀분화($\beta=.24$, $p<.01$)도 결혼안정성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자

녀분화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Ⅱ는 결혼안정성을 총15% 설명하고 있으며, 모델Ⅰ에서 일반적 배경변인만을 보았을 경우보다 9%증가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모델Ⅲ에서는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유형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1단계와 2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결혼지속 년 수, 자녀의 수, 가족 형태, 결혼유형의 배경변인에 있어서는 결혼안정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아버지-자녀분화($\beta=.16, p<.01$)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외에 새로 추가된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유형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성적 대처방식($\beta=.23, p<.001$)은 결혼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이 나타나서 이성적으로 대처할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갈등회피($\beta=-.15, p<.01$)와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beta=-.32, p<.001$)은 그 영향력이 부정적 방향으로 갈등회피와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을 많이 할수록 결혼안정성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모델Ⅲ의 설명력은 39%이며, 2단계에 비하여 설명력이 24%가 증가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추가한 모델Ⅳ에서는 3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아버지-자녀분화와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유형이 결혼안정성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추가 변인인 자아존중감($\beta=.27, p<.001$)은 결혼안정성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Ⅳ의 결혼안정성에 대한 설명력은 44%였으며, 3단계보다 5%가 증가하여 자아존중감을 추가하는 것이 결혼안정성의 전체적인 설명력을 높인다는 것을 나타냈다.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 대한 모든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beta=.27, p<.00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beta=-.26, p<.001$)이었

으며, 이성적 대처방식($\beta=.15, p<.01$)과 아버지-자녀분화($\beta=.15, p<.01$)가 동일한 영향력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갈등회피($\beta=-.12, p<.05$)의 순으로 결혼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자녀분화가 잘 이루어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갈등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처 할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으며,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을 많이 하고, 갈등을 회피 할수록 결혼안정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6> 결혼안정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B	β	B	β	B	β	B	β
배경변인								
성별 ¹⁾	.35	.02	.62	.04	-.42	-.02	.54	.03
나이	.0001	.00	.14	.07	.13	.06	.12	.06
교육 ²⁾	1.16	.07	.69	.04	1.01	.06	.81	.05
결혼상태 ³⁾	2.79	.05	3.62	.06	2.89	.05	2.77	.05
결혼지속년수	-.07	-.29 **	-.06	-.28 **	-.04	-.16	-.03	-.15
결혼유형 ⁴⁾	1.81	.09	2.43	.13 *	1.29	.07	1.0	.06
자녀	1.66	.18 *	1.53	.17 *	1.16	.13	.96	.11
가족형태 ⁵⁾	3.31	.13 *	2.74	.11	2.39	.09	1.94	.07
출생순위 ⁶⁾	.47	.02	-.68	-.03	-.51	-.03	-.81	-.04
직업 ⁷⁾	2.50	.06	4.40	.10	2.17	.05	2.48	.06
소득	.24	.04	.39	.06	.02	.00	-.008	-.00
부-자녀분화			.29	.24 **	.20	.16 *	.18	.15 *
모-자녀분화			.15	.11	-.02	-.02	-.04	-.03
이성적 대처방식					.68	.23 ***	.44	.15 **
갈등회피					-.41	-.15 **	-.32	-.12 *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					-.64	-.32 ***	-.54	-.26 ***
자아존중감							.66	.27 ***
Constant	40.78		18.84		32.25		24.78	
F 값	1.99*		4.28***		11.85***		13.67***	
R ²	.06		.15		.39		.44	
R ² 증가량			.09		.24		.05	

*p < .05 **p < .01 ***p < .001

주1) 성별: 남자= 1, 여자= 0

주5) 가족형태: 핵가족= 1, 나머지는 0

주2) 교육: 대졸이상= 1, 나머지는 0

주6) 출생순위: 막내 1, 나머지는 0

주3) 결혼상태: 기혼= 1, 재혼= 0

주7) 직업: 단순노무직 1, 나머지는 0

주4) 결혼유형: 연애= 1, 나머지는 0

VI. 결론 및 제언

현대 가족에서 부부관계는 가족관계 내에 중심이자 핵심체계가 되어가고 있다. 부부의 관계가 원만해야 부모 자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안정된 부부관계는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시키며, 더 나아가 사회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혼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성격의 차이’가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보고(통계청, 2003)에 근거하여 이러한 개인의 특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갈등 상황 시 대처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부 갈등대처방식이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령, 결혼기간, 결혼 유형 및 상태, 출생 순위와 교육수준, 직업, 경제수준 등을 배경변인으로 선정하여 부모-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이들 변인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 또한 어떠한 변인이 결혼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밝혀서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기간이 10년 이내에 있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338명 중 부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 자료는 빈도,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

(ANOVA), t-검증, 비모수 분석, 적률상관관계, 위계적회귀분석 등이 사용되었으며, 이상의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아버지-자녀분화(평균: 36.04점, 점수범위: 5-55)와 어머니-자녀분화(평균: 37.95점, 점수범위: 5-55)는 전반적으로 중간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에 있어서는 근소한 차이를 보여서 어머니-자녀분화가 아버지-자녀분화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자아분화수준이 보통이라고 보고한 이신숙(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에 있어서 근소한 차이가 나타나서 어머니-자녀분화가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구분에 따라 어머니는 아버지 보다 표현적, 정서적 관계 형성의 역할을 한다는 보고와(전영주,1998) 어느 정도 일치하는 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차이의 근소함은 과거에 아버지의 역할을 도구적이라 여기고, 어머니는 표현적이고 관계적 역할이라고 여겼던 다소 명확했던 구분선이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아버지도 어머니 못지않게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을 시사해 준다고 보여 진다.

자아존중감(평균: 17.74, 점수범위: 5-25)은 전반적으로 다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안정성(평균: 47.33, 점수범위: 12-60)은 비교적 높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유형 중 이성적 대처방식(평균: 17.99, 점수범위: 5-25)은 중간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갈등회피(평균: 12.49, 점수범위:

5-25)와 부정적 감정·행동표출(평균: 12.90, 점수범위: 5-30)의 평균점수는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갈등의 상황 시 갈등회피나 부정적 감정·행동표출보다 이성적 대처방식의 긍정적인 대처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배경 변인에 따른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 결혼안정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자녀분화에는 성별($p<.01$), 연령($p<.01$), 출생순위($p<.05$), 결혼 지속 년 수($p<.01$)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자녀분화는 연령($p<.01$), 직업($p<.05$), 자녀수($p<.05$), 출생순위($p<.01$), 결혼지속 년 수($p<.001$)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아버지-자녀분화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혼여성이 기혼남성보다 분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여성보다 남성이 가족분화를 높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차정화, 2002)와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창만(1992), 금은순(1996), 한미향(2000)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자아분화 수준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과 결혼안정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전춘애(1994)의 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자아분화 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난 반면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가족분화는 원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건강을 의미하므로(남순형, 2000) 본 연구의 아버지-자녀분화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차이의 결과와 전춘애(1994)의 연구결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아버지-자녀분화에서 나타난 성별의 차이는 조사대상자의 연령특성의 영향

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즉, 조사대상자가 20대와 30대가 주를 이루었는데, 그 연령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와 달리 자녀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남녀의 구별이 심하지 않고 교육의 동등한 기회 등으로 비교적 평등하게 양육되었던 것에 기인하지 않은가 사료 된다. 또한 이러한 자녀 양육의 변화와 더불어 부모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양미경(1996)은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비정규적이며 낮은 빈도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만, 아버지도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아버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족분화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하위체계인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를 조사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성별 외의 요인에서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 양쪽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으로는 연령과 출생순위, 결혼지속 년 수였다. 연령은 20대의 젊은 연령대가 분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신숙(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신숙(2000)의 연구결과를 보면, 기혼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분화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출생순위에서 막내의 분화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Bowen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Bowen은 Toman(1961)의 생물학적 출생순위¹¹⁾의 개념을 확대하여 기능적인 출생순위를¹²⁾ 고려하였는데, 이 개념은 부모의 투사대상

11) 생물학적 출생순위란 W. Toman(1961)의 이론으로 각기 다른 환경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출생 순위가 같은 경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가족상담 및 치료, 김혜선·고성혜 공저, 2002).

12) Bowen의 기능적 순위는 가족체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역할 활동의 위치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간 삼각관계에 연루된 큰딸이 결혼해서 독립을 하면 그 다음 순위의 자녀가

선정에 기능적인 출생순위가 관련된다는 것으로, 부모의 투사는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부모와의 정서적 애착에서 벗어나 개성화를 추구하는 자녀는 분화될 수 있지만 부모와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는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가족체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장남이나 장녀가 막내나 외동의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차남이 상황에 따라 장남의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부모의 기대수준이 높은 장남과 장녀는 부모들과 삼각관계를 쉽게 형성해 분화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의 출생순위도 중요하지만 기능적 순위도 고려해야한다. 이 외에 20, 30의 연령대는 이전과 같이 많은 형제자매와 어울려 성장하기 보다는 보통 둘, 셋 정도의 형제자매들과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 세대이므로 특별히 생물학적 출생순위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막내의 분화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결혼지속 년 수는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으로 아버지-자녀분화는 2년 미만 기간의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어머니-자녀분화에서는 5년 미만 기간까지의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결혼기간이 짧을 경우 분화가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들에는 교육, 소득, 가족형태, 결혼상태, 결혼유형 이었다.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들에는 연령과 직업과 결혼지속 년 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성별이나 교육수준, 소득, 가족형

월말릴 가능성이 높고 또는 첫째와 둘째의 연령차가 크면 첫째는 외동의 특성이 강할 수도 있다(가족상담 및 치료, 김혜선·고성혜 공저, 2002).

태, 자녀수, 출생순위, 결혼상태와 유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변인들이다.

연구 대상자들의 결혼 안정성은 연령과 교육, 결혼지속 년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의 집단에서 결혼 안정성이 높다고 지각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일 경우가 결혼안정성이 낮았고 결혼지속 년 수는 2년 미만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안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연령층이 20대, 30대이며 연령이 높은 가족일수록 가족생활에서 오는 불만이 많고 젊은 세대일수록 좀 더 만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한남제(197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은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유형에 해당되는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이성적 대처방식은 연령($p=.001$), 결혼지속 년 수($p=.05$)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은 40대가 20, 30대에 비하여 이성적 대처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지속 년 수도 2년 미만 기간의 집단보다 5년에서 10년 미만의 기간에서 이성적 대처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회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배경변인이 연령으로 나타나서 20대의 연령집단보다 30대, 40대의 연령집단이 갈등회피를 많이 하였다.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은 직업과 결혼지속 년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직업은 전문직 집단이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고, 관리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지속 년 수는 결혼 2년 미만의 기간이 2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기간의 집단에 비해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을 적게 하였다. 부부 갈등대처방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변인들을 종합해보면, 젊은 연령대의 집단과 결혼지속 년 수가 짧은 경우에 이성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연령대가 높고 결혼지속 년 수가 긴 기간일

경우에 갈등회피,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독립하여 새롭게 가정을 형성한 기혼남녀에게 결혼 2년 미만의 기간은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여 생활과 환경 그리고 상대에 대한 적응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기간이어서 갈등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므로 이성적 대처방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이후의 5년 이상 10년 미만 정도의 기간에는 부부간 갈등에서 미해결된 문제가 남거나 또는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 정착하지 못하게 되면 누적된 갈등의 반복이 시작될 수도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누적된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 대처방식으로 정착되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이 기간에 이혼 상담이 가장 많다는 보고(한국가정폭력 상담소, 2002)와 실제로 이혼율이 높은 기간이라는 보고(통계청, 2003)에 근거할 수 있겠다. 따라서 결혼지속 년 수가 짧은 2년 미만의 기간에는 이성적 대처방식이 다른 영역이나 기간, 그리고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며, 40대의 연령집단과 5년-10년 미만의 결혼기간에서는 이성적 대처방식이 적고,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 자아존중감과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유형의 정도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의 수준에 따라 결혼안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 모두 분화수준이 '상'인 집단에서 결혼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분화수준이 높아지면 결혼안정성도 높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분화의 수

준이 높을 때 결혼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전춘애(1994)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자녀의 관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가족 분화는 자녀가 결혼하여 생식가족을 형성한 후에 부부간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자녀분화와 마찬가지로 결혼안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자아존중감이 '하'인 집단보다 '중', '상'의 집단으로 갈수록 결혼안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결혼안정성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결혼적응에 결혼지속 년 수가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원가족 경험이 높을수록 결혼의 적응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김현정(199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유형인 이성적 대처방식, 갈등회피,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의 각각의 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과의 관계는 세 유형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성적 대처방식은 '상'인 집단이 결혼안정성이 가장 높았으며 갈등회피와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은 '하'인 집단에서 결혼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이성적 대처방식을 많이 할수록, 갈등회피와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은 적게 할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아짐을 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의 갈등상황에서 이성적 대처방법을 사용할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고, 회피적 대처방법을 사용할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는(김은정, 1992; 유은희, 1994; 최규련, 1995)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며, 결혼안정성과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은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버지-자녀분화, 어머니-자녀분화,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유형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결혼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이었으며, 두 번째 변인은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이었고, 그 다음은 이성적 대처방식과 아버지-자녀분화가 동일한 영향력이 있음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갈등회피 순으로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은 아버지-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유형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영향력은 자아존중감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자녀분화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의 관계에 많은 관여를 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Umberson, 1992) 자녀가 아버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을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가족체계의 관계적 기능에서 아버지의 참여에 대한 요구는 아들보다 딸에게서 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순현, 2000)는 보고를 통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관계나 부모 자녀관계에서 아버지의 영향도 중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 2>인 성별에 따른 아버지-자녀분화의 차이에서 기혼남성보다 여성이 아버지-자녀분화를 높게 지각한다고 나타난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변인인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

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즉, 비록 개인이 자기의 결점이나 더 잘되기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보다 좋은 점, 또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근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존중감을 갖추게 되는 것을 말한다(신종순, 1990). 또한 자아존중감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족 경험의 상호작용에서 자아존중감이 낮더라도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 배우자 및 주변의 지지와 인정 등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은 향상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가 만족스러운 관계로 결혼을 안정되게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함께 서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결혼의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현재 부부의 결혼생활에서 긍정적 상호작용 방식을 도와 안정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 후에 자녀가 성장하여 다음세대의 결혼생활을 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는 원가족에서 경험한 아버지-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갈등 대처방식의 모든 하위유형들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자녀분화가 잘 이루어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부부의 갈등상황에서 갈등을 회피하거나 부정적인 감정·행동표출을 하는 부정적인 대처방식보다는 이성적 대처방식과 같은 긍정적인 대처를 할 때 결혼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 중에서 결혼안정성에는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노력 및 주변의 의미 있는 사람들의 지지와 인

정으로 향상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변인이므로 앞으로 가족생활교육 중 특히 부부관계의 교육이나 예비부부 교육 등을 통해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게 하고 더불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점을 인식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가족육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총체로서 정서관계체계(Bowen, 1978)라고 정의 내려지고 있듯이 이러한 복잡한 가족관계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정책적으로 가족생활교육이나 가족상담 등이 활성화되어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도 가족교육이나 상담 등 실천적인 영역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20대와 3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젊고 고학력에 속하며, 경제적수준이 중류층에 속하는 서울에 거주하는 기혼남녀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들을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을 가지므로 다양한 사회계층과 다양한 생활주기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을 의미하는 가족분화 중에 하위체계인 부모-자녀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부모-자녀분화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되는 과거 부모의 부부관계, 경제적 수준 등 객관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지 않고 조사대상자의 지각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다. 이러한 조사대상자의 지각에 근거한 자료에 대한 비판들 중의 하나는 지각이 ‘실재(實在)와 관련이 적거나 또는 가족 내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들과도 관련이 적다는 것이다(Hovestadt 등, 1985). 그러나 가족구성원들이 그들의 가족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되고 있으므로(Spiegel & Wilssler, 1983; 전춘애, 1994,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지각에 근거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지각과 실재를 비교할 수 있는 준거가 되는 타당한 객관적인 변인들이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여,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를 나타내는 부모-자녀분화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세 가지 하위유형을 변인들로 이러한 변인들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기혼남녀의 생식가족에서의 부부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노부모와의 현재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가족관계 내에서 여러 정서적인 부분과 가족간에 상호 작용하는 영향에 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기적인 종단연구와 3세대 이상 다세대를 포함하는 연구가 수행되면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고현선·지금수(1995).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71-83.
- 권오실(1995). 부부간의 갈등정도와 갈등관리방법과의 관계분석; 학동기 이전 자녀를 둔 부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순(1996). 자아분화 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 외(2002). 가족학이론, 한국가족관계학회, 216-253
- 김미숙(1989). 도시부부의 결혼 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옥(1993). 집단상담이 일반가정 학생과 시설양육원 학생의 자기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7(6), 77-95
- 김오남(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유숙 외(2003). 가족평가 핸드북. 학지사.
- 김은정(1992). 결혼초기 부부의 역할 갈등 및 갈등해결방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 외(2003). 가족관계학,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남순현(2000).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 성인자녀 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순현, 한성열(2002). 가족분화수준, 가족관계의 질 및 친말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8(2),33-49.
- 송말희(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지, 8(2). 31-47.
- 송여갑(2000). 부모 자녀의 심리적 성장 환경과 자아의 자아정체감 및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종(1993). 우울과 자기존중감에 관한 귀인모형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종순(1990).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은희(1994). 상담가족의 부부간 상호작용. 한국도시부부가족의 문제연구. 한국가족상담 교육연구소 개소1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연구보고서 제1권 (통권1호).
- 유은희·박성연(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 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의 결혼 만족도;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149-162.
- 이근주(1993). 기혼남녀의 자아존중감과 활력적 결혼생활과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신숙(200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23-43.
- 이창만(1992).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부부적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6). 부부의 자아분화 정도와 갈등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효숙(1992).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결과 예측 사고와 아동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 장춘미(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지지 및 갈등해결 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영주(1998). 삼세대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과 성인 자녀의 우울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22-45.
- 전춘애, 박성연(1993).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81-96.
- 전춘애, 박성연(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4), 117-132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은경(2002).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15.
- 차정화(2002). 가족분화와 이성교제 커플의 정서적 역동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지연(1999). 가족 내 표현된 정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최보가·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연구
- 최연실(1988).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혜경·노치형(1994).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 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95-204.
- 한미향(2000).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 J. Hovestadt, W. T. Anderson, F. A. Piercy, S. W. Cochran, & M. Fine.(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Allison, M. D., & Sabatelli, R. M.(1988).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1), 1-16.
- Bahr, S. J.(1989). *Family interaction*.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Benson, M.J., Larson, J., Wilson, S.M., & Demo. D.H.(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63-672.
- Booth, A. & Edwards, J. N.(1989). Transmission of marital and family quality over the generations; The effect of parental divorce and unhappiness. *Journal of Divorce*, 13(2), 41-58.
- Booth, A., Johnson, D.R., & Edwards, J.N(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87-394.
- Chun, Y. J., & Macdermid, S. M(1997). Family differentiation, individuation and self-esteem of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2), 451-462.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H. Freeman.

- Dykstra, L. H.(1996). *Marriage: owner's manual*, Korshka books.
- Feigal, T. J.(1985).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arit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 of Iowa.
- Fine, M.(1988).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health on family of origin to levels of state and trait anxiety. *Family Therapy*,15, 51-57.
- Framo, J.L.(1976). Family of origin as a therapeutic resource for adults in marital and family therapy; You can and should go home again. *Family Process*, 15, 193-210.
- Friedman, E. H.(1991). Bowen theory and therapy. In A. S. Gurman and D. 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Gavazzi, S. M.(1993). The relation between family differentiation levels in families with adolescent and the severity of presenting problems. *Family Relations*, 42, 463-468.
- Gavazzi, S. M., & Sabatelli, R. M.(1990). Family System Dynamics, the Individuation Process,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4), 500-519.
- Glenn, N. D., & McLanahan, S.(1982). Children and marital happiness; a further spec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63-72.
- Glenn, N.D., & Supancic. M., The social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divorce and sepa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 update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563-575.

- Gottman, J. M. & Krokoff, L. J.(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47-52.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4th ed., 275-385), New York; Wiley.
- Heavey, C. L. & Layne, C. & Christensen, A.(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16-27.
- Hill, M. S.(1988).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 427-451.
- Huber, J., & Spitze, G.,(1980). Considering divorce: an expansion of Becker's theory of marital instabi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 75-89.
- Kear, J.(1978). Marital Satisfaction and attraction as a fun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of Psychology, Fresno Campus.
- Kelly, E.L, & Conley, J.J.(1987). Personality and compatibility; A prospective analysis of marital st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7-40.
- Kurdek, L. K.(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1), 153-164.

- Lewis, J., Beavers, W.R., Gossrth, J.T., & Phillips, V.A.(1976). *No single thread;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systems*. New York; Brunner/Mazel.
- Lewis, R.A., & Spanier, G. B(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 Hill, R., Nye, I., & Reiss, I.(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 New York; Free Press, 268-294.
- McGoldrick, M.(1980). The joining of families through marriage; The new couple in E. Carter & M. McGoldrick(Eds.),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Y; Gardner Press.
- Mussen, P. H., Conger, J. J., & Kagan, J.(1980).;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5th Ed.), New York; Harper & Row.
-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 Huston, A. E.(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sixth Ed.), New York; Harper & Row.
- Natarius, C. & Markman, H.(1993). *We can work it out: making sense of marital conflict*. Putnam.
- R.A. Lewis & G. B. Spanier(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Contemporary theoris about the family*. Vol. 1. (Eds.) by W.R. Burr, R. Hill, F. I. Nye, and I.L. Reiss. New York: Macmillan.
- Reifman, A.(1986) Emotional cut-off and the qualities of intimate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S International Univ. Ph. D.

- Rice, F. P.(1979). *Marriage and parenthood*, New York; Allyn and Bacon.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usbult, C. E. & Johnson, D. J. & Morrow, G. D.(1986). Impact of couple patterns of problem solving on distress and nondistress in dating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4), 744-753.
- Satir, V.(1975). *Self-esteem*. CA: Celestial Arts.
- Scanzoni(1979).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Free.
- Skowron, E. A.(1995).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Construct Validation and Test of Bowen Theory*, Dissertation, The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South, S. J., & Spitze, G.(1986). Determinations of divorce over the marital life course. *American Sociology Review*, 51, 583-590.
-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 Umberson, D.(1992).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 :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both gene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64-674
- Wesley R. Burr(1973). *Theory Construction and Sociology of the Family*, New York; Jon Wiley & Sons.
- Wylie, R.(1979). *The Self concept;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Rev. Ed.).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ABSTRACT

The Study of Martial Stability through Family-of-Origin 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Conflict-Coping Behaviors of Couples.

Joung, Eun Hee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Family Differentiation level, Self-Esteem, and Conflict-Coping behaviors affect Martial Stability. And, lastly, this study focuses on what variables that affect the Martial Stability of the married are the most.

In this study, I have used DIFS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 *Anderson & Sabarelli, 1992*), The Self-esteem Scale (*Rosenberg, 1965*), The Conflict-coping Behaviors Scale (*Choi Kyoo-Ryun, 1994*), and MII (Martial Instability Index, *Booth, 1983*) for reference to verify Martial Stability Scale. Total 310 of a married man and woman

(*male: 156, female: 154*) living in Seoul, who has married for 10 years ,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 statistical factors that applied and tested in this study were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OVA and also applied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s a verification method with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outcom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tendency of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is that Parent-Child Differentiation was more than an average level and the self-esteem was somewhat high. And, in Conflict-Coping Behaviors, the rational conflict-coping behaviors showed a higher level than the avoidance of conflict and the negative expression of action or emotion. Therefore, Martial Stability was relatively showed in high.

Second, there ar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 Parent-Child Differentiation, Self-Esteem, Conflict-Coping Behaviors, and Martial Stability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the case of Father-Child Differentiation, it was highly represented in the group of a married woman, the age of 20's, the lastborn, and the married less than 2-year. For Mother-Child Differentiation, it was high in the group of the age of 20's, the youngest of the family, and the married less than 2-year; on the other hand, it showed a low level in a simple labor group. Variables that affect Self-Esteem were occupation, age, and the length of marriage. In the low province of conflict-coping behaviors, the rational

conflict-coping behaviors was low in 40's and the married less than 2-year and the negative expression of action or emotion was also low in the married less than 2-year.

Third, the difference of Martial Stability is dependent on the level of Self-Esteem and Family Differentiation (Parent-Child Differentiation) in terms of Conflict-Coping Behaviors. When the level of Parent-Child Differentiation was higher, the level of Martial Stability was higher as well. And as the level of Self-Esteem was getting higher, the level of Martial Stability was also getting higher. In addition, when the rational conflict-coping behaviors was high and the avoidance of conflict and the negative expression of action or emotion was low, Martial Stability was high.

Last,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most effective variable to Martial Stability among other variables was Self-Esteem.

As a result, Self-Esteem, which is the most effective variable to Martial Stability, is expected to be improved by encouragement and recognition from others. Therefore, for any specific purpose of educational program like for conjugal relation or pre-wedding couple, Self-Esteem improvement program should be developed in terms of educational program through the political supports.

부록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성별	연령	교육	결혼 상태	결혼 년수	결혼 유형	자녀	가족 형태	출생 순위	직업	소득	분화A	분화B	이성적 대처	갈등 회피	부정적 감정표출	자아 존중감	안정성
성별	.																	
연령	-.263 *																	
교육	-.169 *	-.071																
결혼상태	.066	.101	.003															
결혼지속년수	.104	.671 *	-.325 *	-.033														
결혼유형	.087	-.017	.017	-.009	.029													
자녀	.050	.541 *	-.328 *	.221 *	.679 *	.076												
가족형태	-.046	-.005	-.045	.073	.030	.145 *	.195 *											
출생순위	.140 *	-.087	-.120 *	-.005	-.026	-.014	-.047	.040										
직업	-.382 *	-.004	.300	-.081	-.209 *	-.035	-.195 *	.002	-.032									
소득	.025	.126 *	.301 *	.017	.064	.095	.015	.042	-.001	.181 *								
부-자녀분화	.114 *	-.228 *	.114 *	.008	-.152 *	.041	-.126 *	-.072	.078	.032	-.073							
모-자녀분화	.095	-.257 *	.099	-.028	-.209 *	.046	-.155 *	-.056	.044	.090	.011	.644 *						
이성적 대처	.064	-.171 *	.056	.001	-.181 *	.050	-.096	-.056	-.003	.056	-.005	.252 *	.363 *					
갈등 회피	-.058	.131 *	-.049	-.064	.099	-.049	.027	.033	-.016	-.075	-.139 *	-.180 *	-.208 *	-.335 *				
부정적 감정· 행동 표출	.090	.099	-.051	.024	.170 *	-.022	.112 *	-.003	.007	-.030	-.042	-.213 *	-.218 *	-.431 *	.237 *			
자아존중감	.036	-.131 *	.081	-.001	-.144 *	.038	-.069	-.086	.040	.177 *	.055	.236 *	.285 *	.479 *	-.312 *	-.380 **		
결혼 안정성	-.051	-.103	.138 *	-.011	-.179 *	.005	-.072	-.100	-.105	.039	.028	.290 *	.264 *	.465 *	-.331 *	-.502 **	.514 *	.

*p < .05 **p < .01 ***p < .001

--	--	--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질문지는 결혼 전 귀하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과 현재 결혼생활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작성되므로 아무도 귀하의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기록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므로 응답해주신 귀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각 질문에 정답은 없으므로 귀하의 경험과 생활에 가장 근접한 곳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응답 하나 하나는 본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협조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2004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정은희

다음은 가족체계분화에 관한 질문으로 결혼 전 귀하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결혼 전 귀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상적으로 귀하에게 대했던 태도에 관한 문항으로 귀하에게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부모님 중 한분이 부재 중 이시면 과거를 회상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았음	거의 그렇지 않았음	보통 이였 음	거의 그렸 음	매우 그렸 음
1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견해가 (어머니, 아버지)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해 주셨다.	부					
		모					
2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	부					
		모					
3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셨다.	부					
		모					
4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을 강요하시는 편이었다.	부					
		모					
5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셨다.	부					
		모					
6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진짜 의미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편이었다	부					
		모					
7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감정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는 편이었다.	부					
		모					
8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부					
		모					
9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셨다.	부					
		모					
10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감정을 공유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셨다.	부					
		모					
11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부					
		모					

다음은 부부간에 의견을 달리하거나 갈등이 있을 때 부부가 서로에게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각 사항들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곳에 V표하여 주십시오.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경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2	논쟁의 불씨가 되는 주제는 피한다.					
3	배우자나 자녀에게 화를 낸다.					
4	배우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5	내 자신을 탓하거나, 팔자 탓으로 돌린다.					
6	배우자에게 불평을 하거나 짜증을 부린다.					
7	서로의 결점이나 갈등을 겪어야 할 현실로 받아들인다.					
8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을 준다.					
9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내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10	화난 감정을 거친 행동으로 표현한다.					
11	배우자와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					
12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을 일부러 소홀히 한다.					
13	물건을 집어던질 듯이 한다.					
14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는다.					
15	실랑이 벌이기 싫어 본심과 다른 말이나 거짓말을 한다.					
16	배우자를 때리는 등 해를 가한다.					

다음은 결혼안정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귀하가 **현재 자신의 결혼생활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귀하께서 평소 느끼시는 바를 해당란에 V표하여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2	배우자와 불화가 있을 때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해 본 일이 있다.					
3	나의 배우자와 나의 관계는 안정적 이라고 생각한다.					
4	나의 결혼생활은 너무 얽매어져 있어 나에게 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	나는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별거에 대하여 상담기관 근무자에게 이야기 하거나 친구 와 의논한 적이 있다.					
6	우리의 부부유대는 강하다고 느낀다.					
7	나는 내가 나의 배우자와 운명을 같이 하 는 한 팀을 이루었다고 느낀다.					
8	나는 결혼생활을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 데 지쳤다.					
9	이제는 결혼생활을 잘해 보려고 해도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다.					
10	나는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11	나 또는 배우자는 이혼을 심각하게 제안한 적 있다.					
12	앞으로 우리의 부부관계가 잘되길 바라며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다음은 평소 자기 자신과 가깝다고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2	나는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3	대체로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					
4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5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다음은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 귀하의 교육정도는?
 ① 초등학교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전문대졸 ⑤ 대졸 ⑥ 대학원 이상
- 귀하의 현재 결혼상태는?
 ① 기혼(결혼생활 중) ② 별거 ③이혼 ④ 재혼 ⑤ 기타 _____
- 귀하는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 년 _____ 월
- 귀하는 지금의 배우자와 어떻게 결혼하셨습니다?
 ① 중매 ② 연애 ③ 중매반, 연애반 ④기타

7. 귀하의 자녀수는? _____

8. 귀하의 가족형태는?

- ① 핵가족 (부부 또는 부부+자녀) ② 확대가족 (부모님+부부+자녀)
③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9. 귀하의 출생순위는?

- ① 장남 ② 장녀 ③ 차남 ④ 차녀
⑤ 중간자녀 ⑥ 막내 ⑦ 외동 ⑧ 기타 _____

10. 귀하의 직업은?

보 기		
1	무직 및 전업주부	
2	단순노무직 : 운전기사, 식당종업원, 일일노무자, 미화원, 파출부, 수위, 행상, 비숙련공 등	
3	판매기술직 : 이·미용사, 요리사, 판매원, 점원, 영업사원, 생산근로자, 기계공 등	
4	사무직 : 회사나 관청의 과장이하 사무원, 은행원, 위관급 장교, 기타 사무관련 종사자 등	
5	관리직 : 대기업의 과장급 이상, 4-5급 공무원, 영관급 장교, 중소기업주 등	
6	전문기술직 : 교사, 약사, 간호사, 세무사, 건축설계사 등	
7	전문직 : 교수, 법조인, 대기업주, 의사, 장성급 군인, 회계사, 전임연구원, 국회의원, 3급이상 공무원, 언론인, 예술가 등	
8	자영상공업 : 도·소매업, 자영기술, 기능인 등	
9	기타(구체적으로) :	

11. 귀댁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평균소득은 1년치 봉급, 보너스, 수당, 재산소득 등을 모두 합하여 12달로 나눈 액수이며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 ① 100만원 이하 ② 100 - 200만원 ③ 200 - 300만원
④ 300 - 400만원 ⑤ 400 - 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